

2025 한일교사대화
결과보고서

협력과 연대의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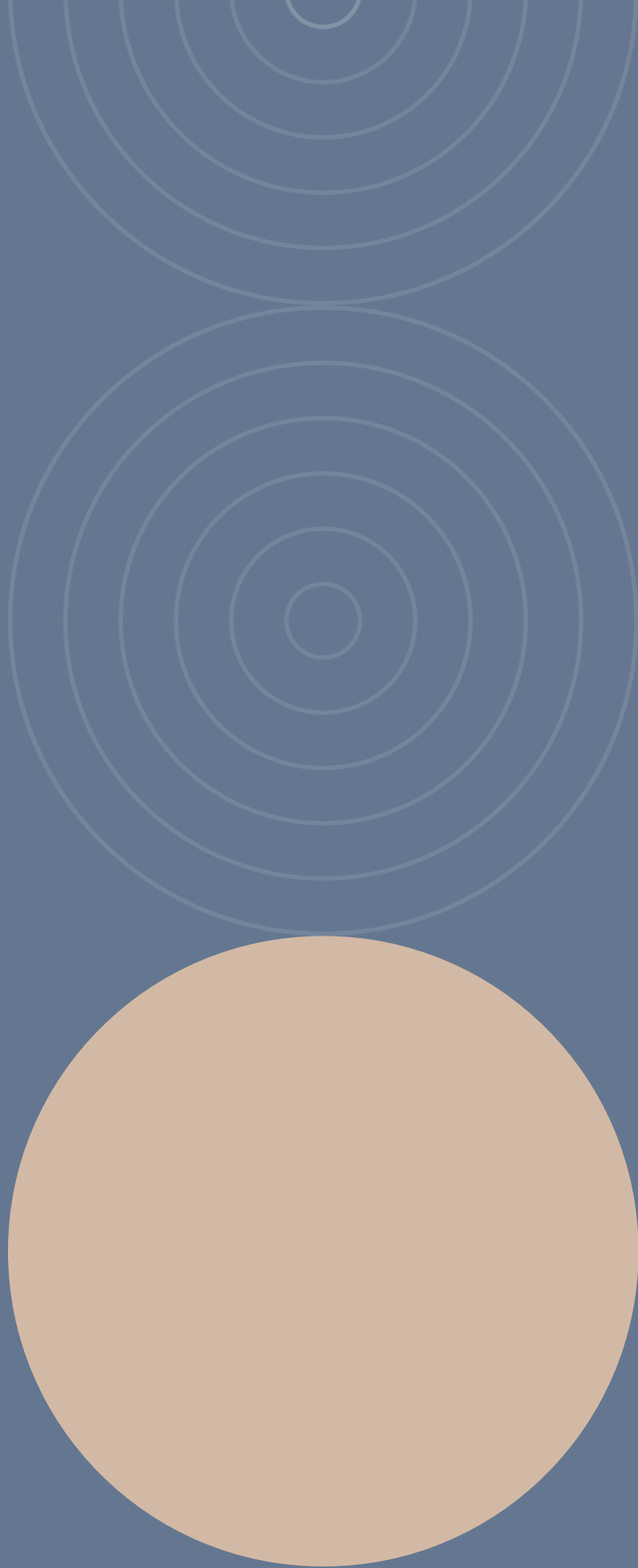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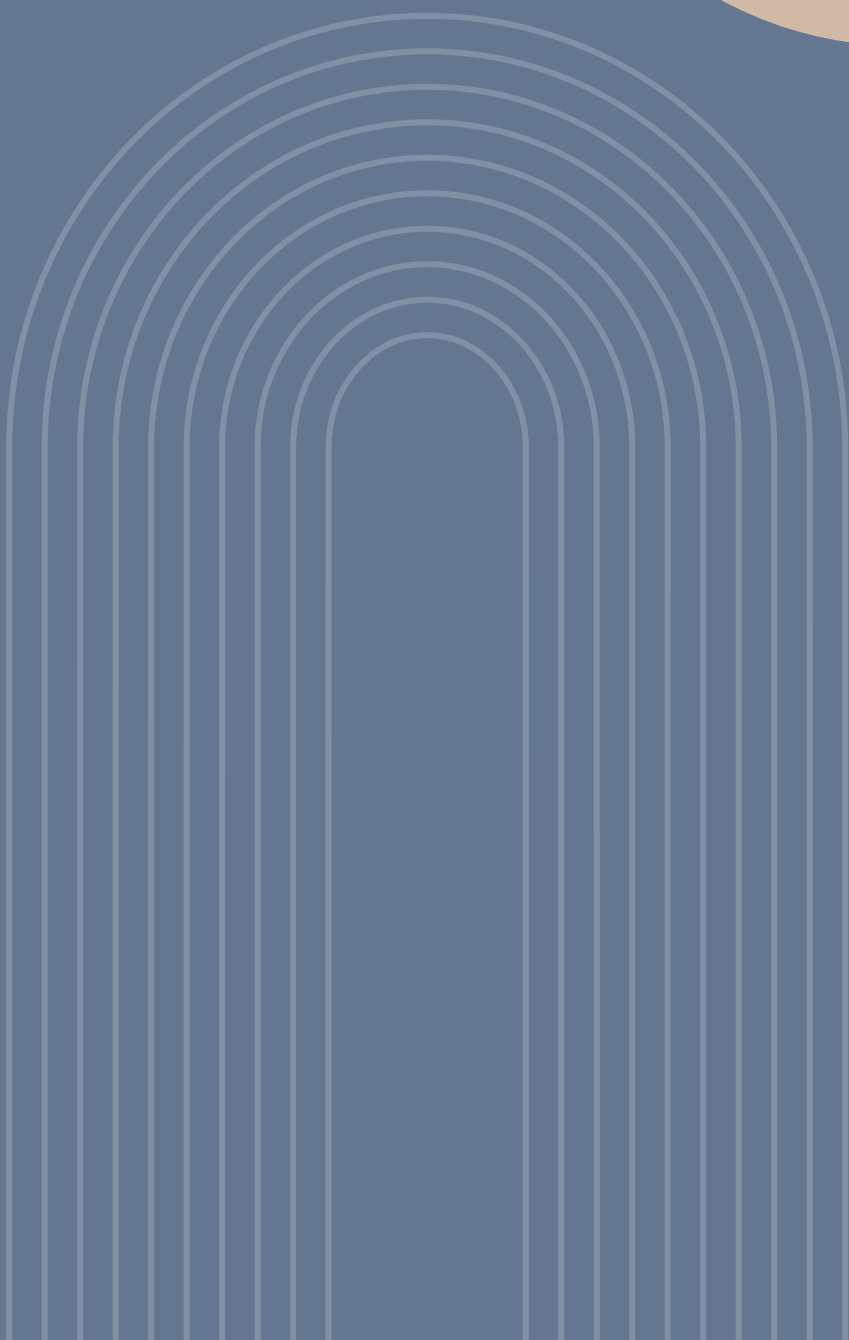
2025 한일교사대화
결과보고서

협력과 연대의 25년

Contents

I. 한일교사대화	01. 사업개요	06
	02. 역대 개최 현황	08
II.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01. 개요 및 주요일정	14
	02. 세부내용	15
	03. 단장 소감	27
	04. 종합평가 및 참가자 소감	30
	05. 언론 보도	39
III.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01. 개요 및 주요일정	42
	02. 세부내용	43
	03. 협력학교 소감	60
	04. 종합평가	74
	05. 언론 보도	76
IV. 교육현장 후속활동 결과	01. 한국교직원 후속활동	82
	02. 일본교직원 후속활동	87
	03. 후속 국제교류 현황	91
V. 부록	01. 참가자 명단	96
	02. 주요 인사말씀 원고	101





I. 한일교사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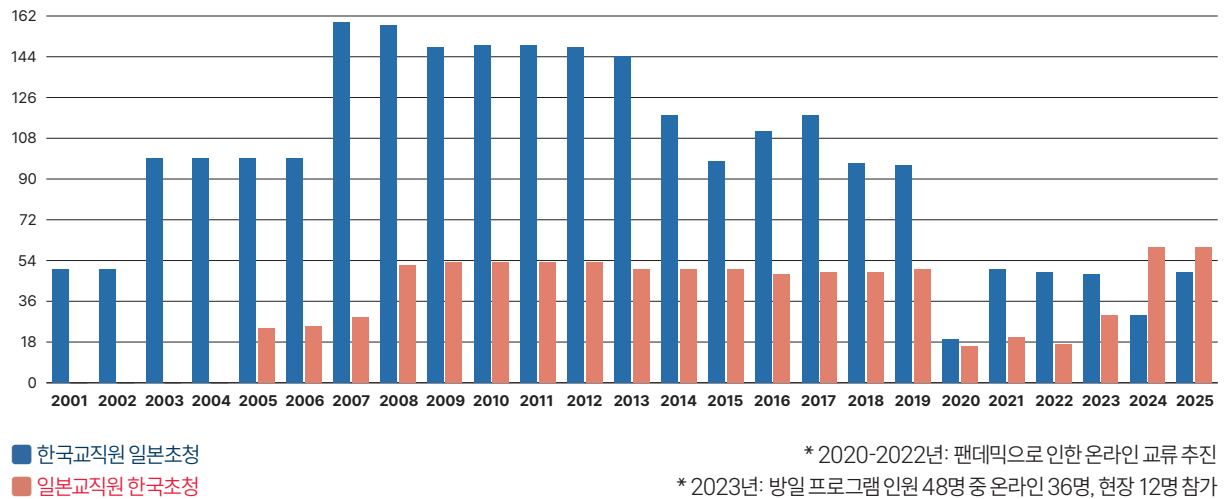
- 01 사업 개요
- 02 역대 개최 현황

0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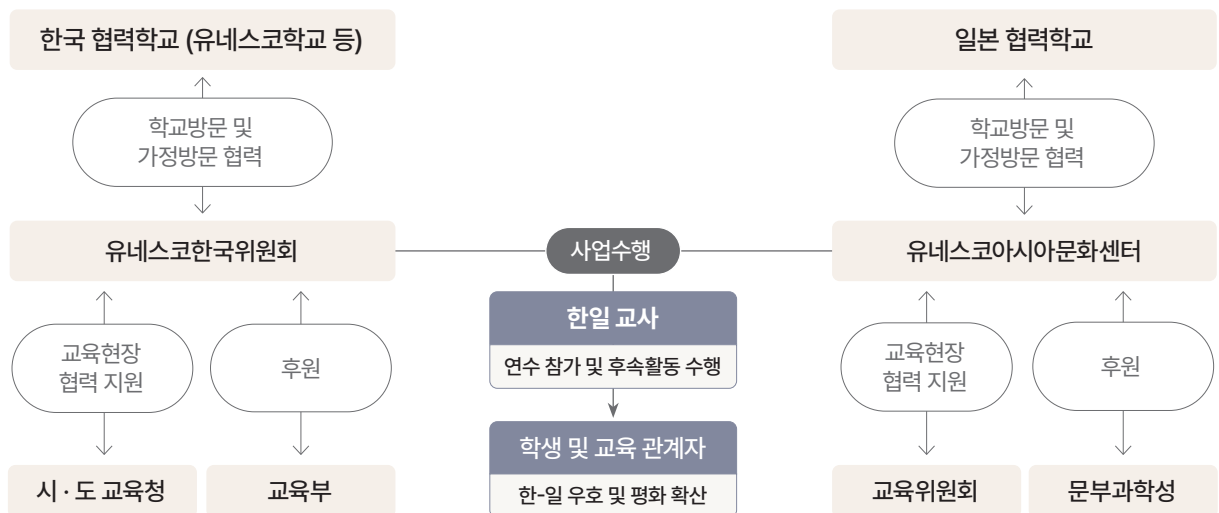
사업명	한일교사대화 ※ 한국-일본 교사 간 국제교류사업 (2001년~현재)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김대중 대통령 -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채택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2000년 한-일 교육장관회의
후원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일본 소재 공익재단법인
배경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과거 관계를 돌이켜 보고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참여 · 노력을 강조하며, 한-일 국민 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교류를 촉진하기로 함 · 2000년 3월, 한일 교육장관회의 중 문용린 교육부 장관과 일본 문부과학성 나카소네 히로후미 문부대신이 한-일 양국 교사 간 교류와 교육협력을 합의함 · 2001년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2005년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양국의 정치적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었음. 한일 교사 간 최장 교류 사업으로서 한일 간 사회문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교사 간 교수경험 공유 및 우호 증진 · 한-일 교육체계 및 교육환경, 문화 등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 평화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사의 변혁적 역할 촉진 · 한-일 학교 · 교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연대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12~2월 중 개최) 2.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7~8월 중 개최)
참가자	한국과 일본의 초 · 중 · 고 · 특수학교 교직원, 교육청, 교육부, 문부과학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 등

**누적
참가자수**

3,315명 (2001~현재)
 · 한국교직원 등: 2,434명
 · 일본교직원 등: 881명



사업추진체계



02. 역대 개최 현황

1)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2001~2025)

연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01	2.5-24 (3주)	남상문	남상문	50명	히로시마, 사가, 가고시마, 오사카
2002	1.24-2.5 (2주)	강대근	정봉근, 김영재	50명	미에, 효고, 오사카
2003	1.16-27 (2주)	김신일	구관서, 한경문	99명	야마구치, 돗토리, 가가와, 미야자키, 오사카
2004	1.29-2.10 (2주)	강대근	임승빈, 유지완	99명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오사카
2005	1.19-2.1 (2주)	도재원	강학래	99명	홋카이도, 후쿠시마, 효고, 돗토리, 오사카
2006	1.11-24 (2주)	이돈희	여종구, 이병석	98명	홋카이도, 구마모토, 시가, 돗토리, 오사카
2007	1.24-2.5 (2주)	문용린	김태훈, 김동환	159명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라, 가고시마, 오사카
2008	1.22-2.4 (2주)	이삼열	강정길	158명	군마현, 게센누마시, 다카라즈카시, 사이타마시, 아키타현, 오사카
2009	2.3-16 (2주)	이경숙	김규태, 심민철	148명	니시고촌(후쿠시마현), 사이타마시, 나라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오사카
2010	1.12-25 (2주)	전택수	강구도, 정민웅	149명	게센누마시(미야기현), 도요나카시(오사카부), 가나자와시(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 오사카
2011	1.11-24 (2주)	권대봉	홍성창, 박혜원	149명	야치요시(치바현), 요사노초(교토부), 이타마시(사이타마현), 치바현, 나라시(나라현), 오사카
2012	1.11-22 (11박 12일)	박은경	권희정, 최유순	148명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요사노초(교토부), 게센누마시(미야기현), 오카야마시(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 오사카
2013	1.16-27 (11박 12일)	김태완	김은희, 김윤정	144명	야치요시(지바현), 하시모토시(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카와현), 치바현, 후쿠오카현, 오사카

연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14	1.19-27 (8박 9일)	안양욱	이진구, 이동명	118명	나라시(나라현), 이나기시(도쿄도), 하시모토시 (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카와현), 오사카
2015	1.18-26 (8박 9일)	민동석	서혜선	98명	야치요시(지바현), 지바현, 와카야마현, 오사카
2016	2.16-22 (6박 7일)	박홍순	박은숙, 배선연	111명	고마에시(도쿄도),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나리타
2017	1.17-23 (6박 7일)	김재춘	박기연, 이하나	118명	고마에시(도쿄도), 야치요시(지바현), 지바현, 나리타
2018	1.16-22 (6박 7일)	김광호	김천홍, 강성화	97명	오사카부, 기후현, 아이치현
2019	1.22-28 (6박 7일)	반상진	임동수, 이선영	96명	나라시, 오사카부, 효고현
2021	1.23 - 2.7	-	정유진	48명	온라인 회의 및 워크숍 (도쿄도, 지바현, 나가노현 학교 참여)
2022	1.17-28	-	이혜인	49명	온라인 교류 및 토의 (아오모리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학교 참여)
2023	오프라인 1.10-1.15 (5박 6일)	-	-	오프라인 12명	시즈오카시, 도쿄도
	온라인 1.27-2.10	-	-	온라인 36명	온라인 교류 및 워크숍 (야치요시, 와카야마현 학교 참여)
2024	1.14-19. (5박 6일)	한경구	이건희	30명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2025	1.21-26. (5박 6일)	김성열	-	49명	오사카, 교토, 나라, 효고

2)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2005~2025)

연도	기간	단장	문부과학성/ACCU	총인원	개최지
2005	9.5-13 (8박 9일)	Mikami Kazuyoki (미야기 교대 교수) Tanaka Kazuaki (동경다케하야초 교감)	Asai Takashi (문부성 과장) 외 1명 Iida Kazuro (ACCU 이사) 외 1명	24명	수원, 안동, 경주
2006	6.11-18 (7박 8일)	Kusahara Katsuhide (다쿠쇼쿠대 부총장)	Nishiyama Kazunori (문부성 국제협력정책실물교류전 문관) 외 2명 Ohashi Chiho (ACCU 전문원) 외 1명	25명	전주, 부여, 광주
2007	6.10-17 (7박 8일)	Nakasone Hirofumi (외무대신, 전 문부대신) Sagara Noriaki (교토노틀담대 총장)	Tada Mayuko (전문원) 외 1명 Iida Kazuro (이사) 외 1명	29명	대전, 청주, 경주
2008	8.19-28 (9박 10일)	Kozawa Kimiko (동경학예대학 명예교수)	Kawakubo Yuriko 외 1명 Kimura Masatsugu (기획과 과장) 외 1명	52명	인천, 수원, 창녕, 경주
2009	8.26-9.4 (9박 10일)	Kiso Isao (문부과학성 국제통관관, 일본 유네스코국내위원회 사무총장) Tejima Toshio (고토구립시노노메 초등학교장)	Shimizu Norihiko (문부성 국제통관관보좌) 외 1명 Iida Kazuro (ACCU 이사) 외 1명	53명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2010	8.25-9.3 (9박 10일)	Sakaguchi Hitomi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위원, 미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Uemura Masaki (문부성 계장) 외 1명 Shimazu Masakazu (ACCU 사무국장) 외 1명	53명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2011	8.26-9.4 (9박 10일)	Kato Hisao (나라교육대 부학장)	Higashi Hideaki (문부성 계장) 외 1명 Shimazu Masakazu (ACCU 사무국장) 외 1명	53명	경남(창원, 김해), 전남 (순천)
2012	8.29-9.7 (9박 10일)	Iwamoto Wataru (문부과학성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국제교섭분석관)	Sato Keiichi (문부성 전문직) 외 1명 Yoneshima Yuriko (ACCU 프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3명	경기, 충남
2013	8.22-29 (7박 8일)	Abe Hirofumi (오카야마대학 부학장)	Kamoshita Yuko (문부성 계장) 외 1명 Yoneshima Yuriko (ACCU 프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0명	충북, 강원
2014	8.26-9.1 (6박 7일)	Otsu Kazuko (홋카이도교육대학 부학장)	Mori Yusuke (문부성 계장) 외 1명 Yoneshima Yuriko (ACCU 프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0명	강원, 충북

연도	기간	단장	문부과학성/ACCU	총인원	개최지
2015	8.25-31 (6박 7일)	Higuchi Toyotaka (고마에제1중학교 교장)	Yamamoto Tsuyoshi (문부성 계장) 외 1명	50명	경기, 전남
2016	7.12-18 (6박 7일)	Kanazawa Yuji (홋카이도 라우스초 교육 위원회 자연환경교육 장학관)	Okamoto Aya (문부성 계장) Shindo Yumi (ACCU 부장) 외 2명	48명	경북(안동), 인천
2017	7.11-17 (6박 7일)	Ota Kaori (큐슈국제대학 교수)	Kuba Masaharu (문부성 지방교육행정전문관) 외 1명 Saito Seigo (ACCU 프로그램 담당관) 외 1명	49명	충북(청주), 대구
2018	7.10-16 (6박 7일)	Ii Naohiro (오사카부립대학 교수)	Nishi Akio (문부성 지방교육행정전문관) 외 1명 Ito Tae (ACCU 프로그램 담당관) 외 1명	49명	경남(창원, 김해), 울산
2019	7.9-15 (6박 7일)	Atsuko Kitaoka (교토 교육 대학 부속 특별 지원 학교 교감)	Saito Sarasa (문부성 담당관) 외 1명 Okano Koich (ACCU 프로그램 담당관) 외 1명	50명	인천, 수원, 강원, 서울
2020	10.11-17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Numano Taro (국립교육연구기관인) Shindo Yumi (ACCU 프로그램 팀장) 외 3명	21명	온라인
2021	7.17-10.16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Shindo Yumi (ACCU 프로그램 팀장) 외 1명	20명	온라인
2022	7.16-10.15	한일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Shindo Yumi (ACCU 프로그램 팀장) 외 1명	17명	온라인
2023	7.16-21 (5박 6일)	Negishi Kazunari (미야기현 가미농업고등학교 교장)	Yanai Eri (문부과학성 담당관) Ito Tae (ACCU 주임) 외 1명	30명	서울, 인천, 파주
2024	7.9-14 (5박 6일)	Masuda Etsuko (아카시시립 우오즈미하가시 중학교 교장)	Murooka Yusuke (문부과학성 계원) 외 1명 Hasumi Shihoko (ACCU 전문관) 외 1명	50명	경남, 부산
2025	7.14-20. (6박 7일)	Watanabe Masako (시코쿠추오 시립 나카노쇼 초등학교 교장)	Fuke Mayu (문부과학성 계원) 외 1명 Ito Tae (ACCU 주임) 외 1명	60명	제주



II.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 01 개요 및 주요일정
- 02 세부내용
- 03 단장 소감
- 04 종합평가 및 참가자 소감
- 05 언론 보도

01.

개요 및 주요 일정

프로그램명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기간	2025. 01. 21.~26.
장소	일본 오사카 및 교토, 나라, 효고
주최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일본 문부과학성, 대한민국 교육부
주제	행복한 학교: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교직원 상(像) 탐구
주요내용	학교 및 교육·문화기관 방문, 한일 교사 교육교류 회의, 가정방문 등
참가자	한국 유네스코학교(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등 49인

일자	내용
1월 21일(화)	오리엔테이션 환영만찬
1월 22일(수)	[A그룹] 다나베 중학교 방문, 가정방문 [B그룹] 고베시립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방문
1월 23일(목)	[A그룹] 오지 미나미 의무교육학교 방문 [B그룹] 고베시립박물관 방문, 사와노츠루박물관 방문
1월 24일(금)	[A그룹] 오지 기타 의무교육학교 방문, 호류사 방문 [B그룹] 우오즈미 히가시 중학교 방문, 가정 방문
1월 25일(토)	한-일 교사 교육교류 회의 폐회식
1월 26일(일)	출국

02. 세부내용

환영만찬

미즈노 도시아키 문부과학성 국제과 국제협력기획실장

“올해는 한일 교사교류 사업 25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연수가 ‘행복한 학교’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교직원-일본 교직원-학생 간 심도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한국교직원을 초청하여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교사대화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 온 매우 뜻깊은 교사 교류 사업입니다.”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지난 25년간 한일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며,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전통이 이어져 더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다나베 중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30	학교 도착
09:45-09:55	학교 대표 인사, 방문단 대표 인사 기념품 교환
10:00-10:40	학교 소개 및 질의응답
10:50-11:40	그룹 1: 다도 체험 그룹 2: 교내수업 견학
11:50-12:40	그룹 1: 교내수업 견학 그룹 2: 다도 체험
12:40-13:10	급식 체험
13:10-13:30	휴식 및 청소시간 견학
13:35-14:25	한국 교직원의 문화수업
14:35-15:25	일본문화 소개 및 학생과의 교류
16:00-17:00	스포츠 교류(한일교직원 소프트배구 경기), 기념 사진 촬영
17:30-20:30	가정 방문
20:45	학교로 집결 및 출발

황다운 연천초등학교 교사

“한국어로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모습에서 일본 학생들의 배려심과 적극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일본 교육의 장점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을 한국 교육에도 적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게 되었다.”

김형수 청하중학교 교사

“수업 참관과 학생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후, 우리 한국교사들이 직접 문화수업을 하고 나니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은 말 그대로 선입견’이라고 새삼 생각했다. 학생들의 바른 인사와 몸에 밴 예절 등. 문화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과 카드게임 및 일본 민속놀이 등을 하면서 학생들의 바른 태도와 적극성, 진지함이 너무도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박화영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사

“곳곳에 한국어로 환영인사가 붙어있었다. 학급 급훈이 있는 게시판에 ‘한국 선생님 들께 인사를 잘하자’와 같은 하루의 모토가 한국어로 적혀있기도 했다. (...) 한일교사가 함께 친선 소프트배구 경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일전이 아닌 한일교사들이 서로 섞여 한 팀이 되어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니 즐거웠다.”

전혜인 문산수억고등학교 교사

“‘행복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질문에 일본 학생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며 답변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즐거운 학교, 기쁨이 가득한 학교, 웃을 수 있는 학교’라는 대답을 했다. ‘행복한 학교’는 어쩌면 아주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미래, 4차산업혁명, AI 혁명’ 등의 단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결국, ‘인간, 사회, 그리고 행복’이 아닐까. 교사로서 학생들이 나답게, 그리고 너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미래를 향한 동행자로서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에 충실한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고베시립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30-10:45	환영 말씀 및 학교 소개, 질의응답
11:00-12:10	학교 견학
12:10-13:10	점심식사
13:10-14:10	한국 교직원 수업
14:20-15:10	한일 교직원 교류회
15:30-16:30	동아리 활동 견학
16:30-16:45	마무리 인사, 학교 출발

이지현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체육수업 중 준비운동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 학생들은 철저히 기본에 충실하며,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작을 끝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다. 준비운동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대충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성실하

게 참여하는 모습에서 책임감과 단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교육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기본적인 동작 하나까지도 철저히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혜진 안화고등학교 교사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방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주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고베의 유명한 호텔의 경영 및 운영을 한달간 실습해본다고 한다. 일본은 졸업 후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해 자리를 잡고, 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에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중심으로 학교-산업체-공공기관이 사회의 협조를 잘 이끌어 안정적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특별히 인상 깊었다. 그 기반에는 지역사회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노력, 선배 학생들이 남긴 좋은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지속적 연계성을 갖고 지역 내에서 인적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인희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우오즈미 중학교와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행복한 학교’에 대한 생각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신코다치바나 고등학생들의 밝은 미소와 꾸밈없는 태도를 보며 성적이 좋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처음에는 궁금했다. 오로지 성적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 학교와 학생들, 교사의 모습은 오히려 소박하고 순수하였다. 학생들은 예의와 학교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권리에 앞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사와 학생 간에 배우고 가르치는 신뢰가 존재하였다. 역시 교사들의 미래는 학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사도 만족하고 행복하다. 일본에서 만났던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과 단정한 태도는 다시 생각해도 대견하고 새 학기에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큰 위안과 힘이 될 것 같다.”

**오지 미나미
의무교육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30-10:00	개회식 및 학교 소개
10:45-11:30	환영식 (학생들의 학교 소개, 소란춤, 교가 제창, O/X퀴즈 등)
11:35-12:20	수업 참관
12:20-13:05	급식 체험
13:10-13:40	하타케다 학사 이동 및 청소시간 견학
13:50-14:40	한국교직원 문화수업
14:50-15:10	관악부 합주 참관
15:20-15:50	학생회의 학교 소개
16:00-16:30	한일 교직원 교류회

오정훈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오지미나미의무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 과정을 통합한 학교였다. 상대적으로 긴 초등교육기간을 중학교와 통합함으로써 적응을 위한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년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강당에서 방문단을 환영하는 인사와 공연을 전교생들이 모두 참여하고, 아이들이 접어만든 선물을 수줍게 전해주는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채희창 함창중학교 교감

“일본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교육적 시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 특히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오지미나미의무학교와 오지기타의무학교 사례를 통해, 학교급 전환기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급 전환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전환기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자 한다.”

강병일 부산성우학교 교장

“방문한 3개의 학교 모두에서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 모든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개인이 아니라 모두, 단체를 강조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화수업 시간에도 제기차기를 이상한 자세로 하는 학생,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웃음이나 질책이 아니라 격려와 도움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에 역시 일본인 특유의 질서와 예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일본 학교문화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편견과 오해를 많이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여러 활동들이 매우 의미있게 다가왔으며 선생님들 개인의 유익과 여유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오지 기타 의무교육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00-09:20	학교 소개
09:20-10:50	학교 시설 및 수업 견학
10:50-11:20	질의응답
11:20-11:40	폐회 행사
11:40-12:15	급식체험 및 영양교사와의 대화
12:30	학교출발

윤기종 지정초등학교 교사

“의무교육학교란 개념이 낯설긴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하나로 묶은 한국의 통합운영학교와 같은 학교였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오지정 지역의 의무교육학교는 인근 3개의 소학교 및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학교라 하였다. 대학 캠퍼스를 방불케 하는 큰 교정이 눈에 띄었고 학교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운동장이 있는 점이 이채로웠다. 국내 대부분 군지역 학교는 개발도상기인 80년대에 재건축한 건물이 많아 현재의 학생과

교육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널찍한 교실과 편리하게 구성된 교구들을 보니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박화영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사

“일본 학교는 급식 잔반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로서 청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 부등교 학생 문제로 인해 교실 입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중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 근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의무교육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우오즈미 히가시 중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30-10:50	개회식 및 학교 소개
11:00-11:30	교내 안내
11:45-12:35	수업 참관
12:35-13:05	급식 체험
13:25-14:15	한국 교직원 문화수업
14:25-15:15	한일 교직원 교류 및 기념 사진
15:15-15:30	청소활동 참관
15:40-16:45	동아리 활동 견학 및 나기나타 연무 관람
16:45-20:00	학교 출발 및 가정방문
20:00	각 가정에서 학교로 집결, 학교 출발

이상형 영일고등학교 교사

“점심시간과 청소시간, 축제기간 중 학급별 합창을 통해 ‘협동과 협력,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본교육을 보고 새삼 놀랐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 교실을 협력하며 청결하게 하고, 사용한 걸레는 깨끗하게 빨아 건조대에 걸어 둔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와 다름을 느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동학대’로 민원에 시달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 식사하기 전 모두 두 손모아 감사기도

를 올리는 문화와, 수업이 시작하고 끝난 후 교사들, 교실 뒤에 있는 참관교사에게도 뒤돌아 감사인사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본교육이 기본교육과 예절교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한다.”

송희진 인천만수고등학교 교사

“우오즈미 히가시 중학교에 일본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배식 지도는 물론 혼자 교실에서 식사하시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비하면 야근 수당도 없고, 근무시간도 많고, 동아리 지도도 매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일본교사들의 모습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이동호 고색고등학교 교장

“이곳에서도 방과후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검도부의 30분 넘게 이어진 시범 활동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진지함과 적극적 활동, 지도교사의 절도 있는 교육 현장이 매우 인상 깊었다.”

조상주 태릉고등학교 교장

“종례 시간은 ‘정말 이래야 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종례를 최대한 짧게 하고 집에 보내기 바쁘는데, 학생 주도로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며 내일 시간표를 적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하는 반성을 하였다.”



가정 방문

전예린 샘마루초등학교 교사

“일본교사 부부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 다양한 일본 요리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논문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도 했던 사회 선생님이셔서 대화 주제로 금기시되던 ‘한일 역사’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일본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 교육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갈등을 겪는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화를 나눴던 것은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이 많이 계시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지혜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사

“일본 가정방문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방문 전 일본의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흥미로웠고, 일본 가정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국경을 넘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간적인 친밀감은 언어를 초월해 전달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조상주 태릉고등학교 교장

“우오즈미히가시중학교의 영어강사로 계신다는 준코 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와 작지만 정성어린 선물을 통해 따스한 정을 맞볼 수 있었다.”

황현주 여의도중학교 교사

“일본은 주택의 내부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다나베중학교 교사들과 영어 및 번역기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같은 교육자로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맞아주신 하세가와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고베시립박물관 방문, 가와노쓰루박물관 방문

한혜진 안화고등학교 교사

“고베박물관은 1982년 요코하마 정금은행의 고베지점으로 개관했던 장소를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베의 역사, 변천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박물관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옛날 사람들의 움막집 조립, 생활도구 제작 및 헤이케이야기 병풍을 활용한 캠페이션투의 등장인물 찾아내기, 일본 개항시 유럽 사람들이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 “사오노쓰루 사케 박물관은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위치한 전통 사케 양조 박물관으로,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1717년 창립된, 고베의 대표적인 사케 브랜드인 ‘사오노쓰루(沢の鶴)’의 역사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사케 양조 과정과 관련 도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 술 제조 전통 기술’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호류사 방문

이지은 영선중학교 교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류사 방문은 일본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7세기에 건립된 목조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한일교사 교육교류회의

나유경 정원여자중학교 교사

“나카야마 요시카즈 대표가 전해준 ‘비인지 능력’에 대한 강의는 수업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지식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집중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수업’이란 감정과 같은 비인지적인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한 것이 내게 경종을 울렸다. 무엇이든 자동화되는 오늘날의 AI시대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자제력,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철민 신둔초등학교 교사

“세 번의 학교 견학, 두 번의 수업, 일본 교직원들과의 체육 활동, 일본 현지 가정방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 비인지 능력에 대한 강의, 일본 교사들과의 교류회, 그리고 참가한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했던 공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소감을 기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의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폐회식

김민희 백사초등학교 교사

“폐회식에서 오지교육위원회 관계자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어른들 세계에서는 양국 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지만, 아이들이 처음 경험한 한국이라는 세계는 무척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미래에 이 아이들이 한일 교류를 주도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 교류가 단순한 경험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교류의 순간들이 언젠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국경을 초월해 교사로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고 평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연수 후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행복한 학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본 연수를 계기로 지난 25년간 이어온 한-일 교직원 교류의 역사를 함께 되짚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성공적으로 연수를 이끌어준 일본 문부과학성, 교육위원회, 방문 학교 구성원, ACCU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03. 단장 소감

※ 본 지면에서는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참가소감문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한일교사대화에 단장으로 참가해주시도록 요청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 방문과 수업 관찰, 교직원과의 대화, 가정방문 등 직접 경험을 통하여 제한적이거나 일본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일본의 학교를 방문하여 온종일 머물면서 수업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하며, 교직원들과 대화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정방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럽고 긴장되었지만,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일본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교육,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

습니다. 어떤 부분이 한국 학교와 달랐고 인상 깊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나베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일본 학교니까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 중학교 시절(1969~72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교실의 칠판을 향해 배치된 책상, 40명 가까운 과밀 학급, 교복을 입은 학생들, 방문객을 맞이하는 교직원들의 모습, 심지어 방문객을 위해 준비된 슬라이퍼까지 모두 예전 한국 학교와 비슷했습니다. 수업도 종이책 교과서와 태블릿을 병행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어서 2000년대 이전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한국의 학교는 공간 구조가 달라지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롭게 옷을 입으며 젊은 교사들과 생활하는 등 많이 변했지요. 그런 변화에 익숙한 요즘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일본 학교의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메뉴 구성이 밥과 반찬 두 가지로 소박했고, 점심시간이 20분으로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당번 학생이 위생복을 입고 배식하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식사한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국과 큰 차이가 보였던 부분은 점심식사 시간에 음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식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지정교육위원회 소속 오지미나미의무교육학교와 오지기타의무교육학교를 방문하시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오지정교육위원회가 '교육마을 오지'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오지정 평가검토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9년간 성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활동을 꾸준히 검증하는 교육적 통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특정 간부 몇 명이 아니라 간부 전원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학년 전체가 나서서 학교 소개와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 때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구조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고학년이 저학년을 이끌며 친숙해지는 문화를 중

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9학년이 1학년을 지도하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돌봄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세대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장치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에는 학생용 의자가 없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작은 부분에서도 학생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철학이 드러났습니다. 또 특별실 수업에서는 전담 교사뿐 아니라 담임교사까지 함께 참여해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오지 의무교육학교는 학생 참여와 자치, 안전, 그리고 학년 간 돌봄 문화를 통해 한국 학교와는 또 다른 교육적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에 직접 참가하신 후,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번 연수를 통해 저는 한일교사대화가 가지는 성과와 의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 학교가 운영되는 모습은 같은 나라 안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다르고, 같은 급의 학교라도 교사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며, 국가 간에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 역사와 전통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지향성 자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일본 학교 방문을 통해 그 다양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님께서 ‘다양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수 중 이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양성은 내부자적 관점(emic approach)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외부자적 관점(etic approach)에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거나, 단순히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관찰하고 경험하고 확인한 일본 교육을 우리 교육과 비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 방문단 모두에게 이번 일본 방문연수는 문헌이나 전언(傳言)으로만 이해했던 일본의 학교문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일본의 교육을 잘 알고 이해하는 너무나 소중한 참여관찰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육적 성과를 넘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분히 해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지요?

한국과 일본이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사실상 동일한 과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더 나은 학교는 단지 즐겁기만 한 학교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배움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큰 목적 중 하나는 한일 교류 및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입니다. 이번 방문연수가 이 목적과 관련하여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지정교육위원회 관계자께서 “짧은 시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두가 한국 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이들이 성장했을 때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리라는 기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교

04. 종합평가 및 참가자 소감

참가자 설문결과
주요내용

1. 한일교사대화 참가 전/후 변화

1) 일본에 대한 관심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매우 약한 관심	0	0
약한 관심	6.1	0
다소 약한 관심	0	0
중간 정도의 관심	38.8	0
다소 강한 관심	22.4	6.1
강한 관심	10.2	38.6
매우 강한 관심	22.4	55.1
참가 후, 일본에 대한 매우 강한 관심 55.1%, 강한 관심 38.6%, 다소 강한 관심 6.1%		

2) 일본 교육에 대한 이해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전혀 모름	8.2	0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음	26.5	0
보통 정도로 알고 있음	42.9	10.2
어느 정도 알고 있음	16.3	67.3
매우 잘 알고 있음	6.1	22.4
참가 후, 일본 교육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 22.4%, 어느 정도 알고 있음 67.3%, 보통 정도로 알고 있음 10.2%		

3) 국제교류와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매우 약한 관심	0	0
약한 관심	2	0
다소 약한 관심	4.1	0
중간 정도의 관심	18.4	0
다소 강한 관심	18.4	6.1
강한 관심	26.5	26.5
매우 강한 관심	30.6	67.3

참가 후, 국제교류와 국제이해교육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 67.3%, 강한 관심 26.5%, 다소 강한 관심 6.1%		
---	--	--

2. 한일교사대화 참가 후 영향

1)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일본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했다고 느낀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36.7%	44.9%	16.3%	2.1%

2)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한국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했다고 느낀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42.9%	46.9%	10.2%	-

3)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교육 활동과 실천에 적용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59.2%	40.8%	-	-

4) 이 경험을 나의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73.5%	26.5%	-	-

5) 나의 학교/기관에서 국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추진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59.2%	38.8%	2%	-

3.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83.7%	16.3%	-	-

4.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이 교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87.8%	10.2%	-	2%

참가자 소감**공은성**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지금까지 여러 국가와 온오프라인으로 교류 활동을 해오면서 국제 교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컸다. 오늘날에는 국제 교류에서 다루는 내용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평소의 생각이 연수 일정을 소화하며 조금씩 바뀌어나갔다. 단순한 공기놀이와 제기차기일지라도, 뽀뽀뽀 뽀뽀 뽀뽀 눌러 적은 한글 이름이라도, 그 작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교류를 넘어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권가연 계성고등학교 교사

“이번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면서 일본 교육 현장의 다양한 특징(교실 내 질서와 집중을 강조하는 분위기,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일본 전통을 반영한 학습과 생활 문화,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등)을 인상 깊게 경험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교류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태도, 질서 및 배려 문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김미란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교사

“행복한 학교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학교가 행복해지도록 나 역시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일본의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과 시야를 넓히고 전국의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민희 백사초등학교 교사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교육이야말로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의 인식 변화가 교류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학생들에게 스며든다면, 미래 세대는 일본을 단순한 ‘과거의 적’이 아니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교류의 순간들이 언젠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국경을 초월해 교사로서 같은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고 평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김세림 서울신대림초등학교 교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들여다보면 근대식 학교가 없었던 우리나라가 일본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았음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낫설게 볼 수 있는 필터가 생긴 것 같다.”

김승철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

“교육에서 규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개성,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각자의 개성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과거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려는 시도와 새로운 세대의 개성과 역량을 인정하는 교육의 필요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균형 잡힌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 깊어졌다.”

김용재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연수 참가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배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배웠다.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그동안 교사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도 조금씩 알아보고 싶어졌다.”

김현숙 장곡고등학교 교사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김형길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장

“대학입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학원 가기 바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목격한 매우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류동구 경기경영고등학교 교사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학교의 밝은 학생들과 친절한 교사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변동준 염광고등학교 교사

“일본 학교는 다소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고 한국 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서로의 방식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규율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와 우리나라 학교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을 실감했다.”

빈장원 성환초등학교 교사

“한일교사대화는 제법 시간적 여유를 가진 5박 6일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촘촘하게 채워졌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채워주었던 것은 우리가 만

난 일본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이었다. 우리가 본 모습은 전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은 교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한 시간의 수업을 헛되이 보내는 법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열정과 교육을 향한 도전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송미진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교사

“일본과 한국은 나라, 언어, 문화 등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다. 학교라는 서로에게 익숙한 공간이 주는 힘은 컸다. 학교 안에서 한일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교에서 경험했던 일본 학생들과 교사들의 따뜻한 인사, 함께 수업하며 웃었던 기억, 학생들과 함께한 점심 및 청소 시간, 일본 가정방문 등의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신영재 고창북고등학교 교사

“일본교육을 경험해 본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과정이 아닌, 개개인의 성장과 협동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자신의 몫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생의 기초와 발판을 다지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짐을 느꼈다. 우리 학생들도 입시 또한 중요하지만 인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동호 고색고등학교 교장

“사전모임에 참가하면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해외 교육문화체험과 달리 보다 구체적

이고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300년된 중요건축물로 지정된 가정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나눈 한일간의 문화와 삶에 대한 대화는 매우 뜻깊었으며,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이번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아린 진가초등학교 교사

“이 연수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교사 이외의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았는데, 이 연수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사, 중등학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연수였다. 학교급별, 지역별, 직급별 차이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점도 많았다. 나보다 어린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명함을 보고 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선배 교사와 관리자분들을 뵈며 교사로서의 발자취를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 수업과 가정 방문은 일본 학생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주는 본질적인 기쁨과 보람을 오랜만에 느꼈다.”

이은주 한솔중학교 교사

“일본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극우적인 성향의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모르며,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주어 일본에 가졌던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한일교사교류가 반일감정을 줄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싶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 사람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예린 샘마루초등학교 교사

“이번에 한일교사대화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전에는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서 일본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조금씩 얼어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어서 이번에 교류했던 일본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교육 교류를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정하규 창녕대성고등학교 교장

“이번 연수를 통해 한일간 교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학교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기본적인 질서의식은 가정과 학교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되새길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업 자료 중 독도 관련 내용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교육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점으로 기억이 된다.”

조은희 선화여자중학교 교사

“연수에 참가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능력과 열정을 지닌 교사들을 만난 경험이

다. 학교에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보려 노력했던 그룹 활동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일본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뜻깊었다. 각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참관과 교사 간의 대화를 통해, 교사라는 공통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음을 느꼈고, 일본의 선생님들에게 더욱 애정이 생겼다.”

최경심 칠원고등학교 교사

“이번 연수를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했다. 일본의 교육 현장을 경험한 것도 이에 일조했지만, 같이 방 일한 한국 교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특히 느낀 바가 크다. 그간 고등학교에서 입시에만 몰두하느라 진정한 교육의 가치, 목적, 목표,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서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같은 형식과 내용의 수업이더라도 교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학생의 풍요롭고 민주적인 삶을 위해서 가르치는가, 대입 및 수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생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유네스코학교의 가치와 이념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과 행사, 활동 등을 듣고 공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스스로 변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최중현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번 한일교사대화는 개인적으로도, 교사로서도, 나 스스로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나 자신의 교육 철학과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물음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의 서로 다른 교육 체계를 비교하고, 여러 워크숍과 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행복한 학교의 모습을 탐색했던 과정, 단순히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점, 다양한 배경과 철학이 있는 일본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의 교육 철학과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홍선미 상명고등학교 교사

“연수를 마친 후, 나는 교육자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교육이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홍지원 하늘빛중학교 교사

“유네스코학교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바쁜 학교 업무와 수업으로 일을 추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 참가하면서 직접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 그저 말로만, 문자로만 우리는 보편성을 공유하는 인간이며 연결 되어있다고 배우는 것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류에서 오는 마음의 움직임이 진정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느꼈다. 분명 국제 교류 사업은 번거롭고 힘들 것이다. 하물며 한국에서 다른 학교와 협업하는 일, 아니 교내에서 다른 동료 교사와 협업하는 일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언어도 교육과정도 문화도 다른 타국의 학교와 교류하는 것은 얼마나 더 쉽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느낀 것은,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확인하고 연결됨을 느끼면,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이 동력을 잃지 않고 소속교와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치열하게 설계하고 고민하여 교류의 여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05.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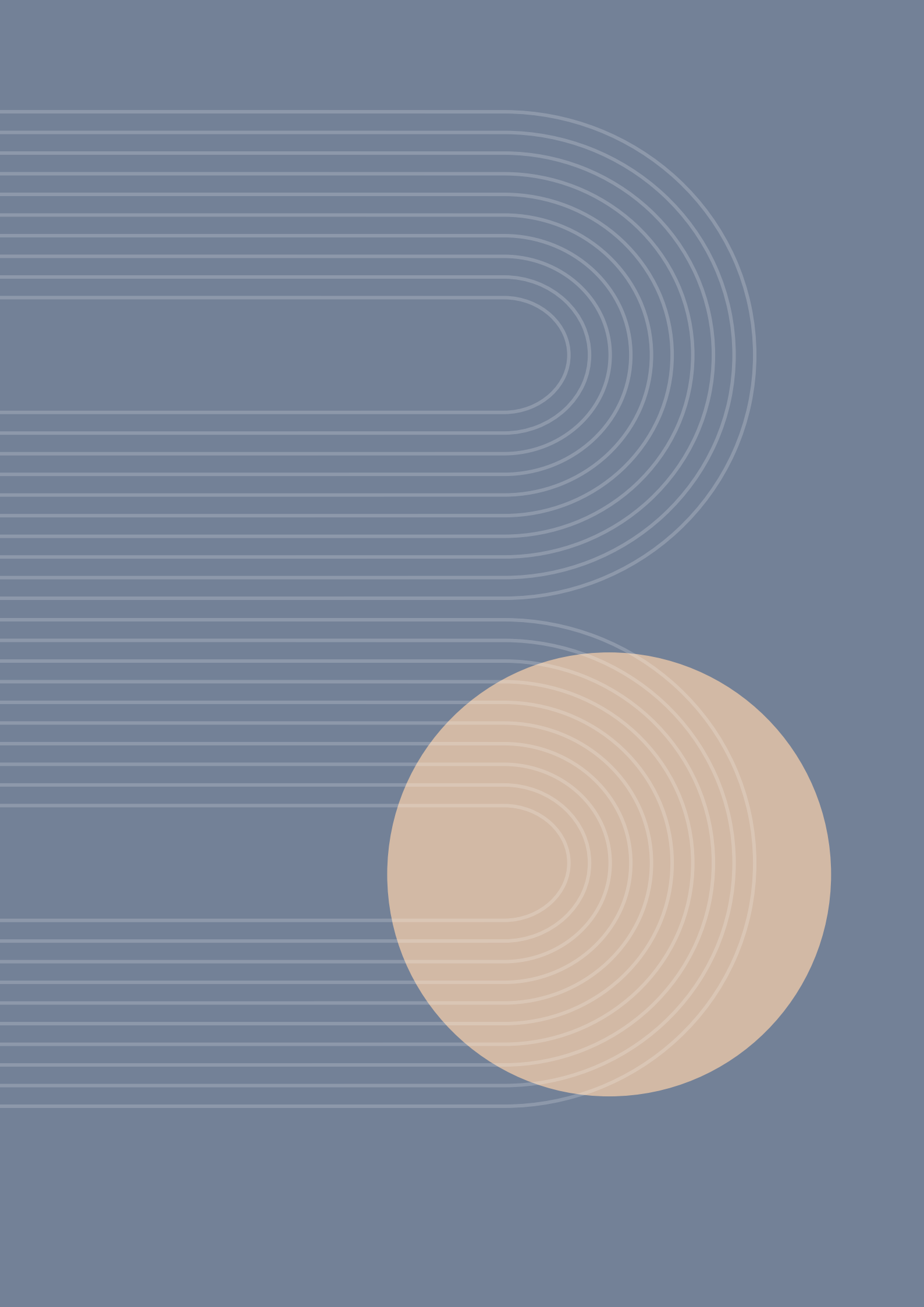


고베신문

2025년 1월 26일자

“한국교직원들은 우오즈미히가시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및 1·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급식 체험과 함께 한국 교직원들이 준비한 문화 수업을 진행하며 교류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큰 흥미를 보였으며, 밝은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 고색고등학교 이동호 교장은 학생들이 밝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이야기를 건네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은 양국 간 교육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II.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 01 개요 및 주요일정
- 02 세부내용
- 03 협력학교 소감
- 04 종합평가
- 05 언론 보도

01. 개요 및 주요 일정

프로그램명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기간	2025. 07. 14.~2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후원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주제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주요내용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가정 방문, 세계유산 탐방, 한일교사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 등
참가자	일본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문부과학성 및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 등 60인
일자	내용
7. 14.(일)	오리엔테이션 개회식 및 환영만찬회
[1부] 교육현장 방문교류	
7.15.(화)	[A그룹] 삼성여자고등학교 방문,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 [B그룹] 표선고등학교 방문,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방문
7.16.(수)	[A그룹] 보목초등학교 방문, 서귀포학생문화원 방문, 가정 방문 [B그룹] 인화초등학교 방문,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방문, 가정 방문
7.17.(목)	성산일출봉 방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 제주4·3평화기념관 방문
[2부] 한일교사 교류	
7.18.(금)	교육현장 방문교류 그룹별 결과 발표 한일교사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1)
7.19.(토)	한일교사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2) 제주해녀박물관 탐방
7.20.(일)	후속활동계획 발표 및 폐회식

02. 세부내용

개회식 및 환영만찬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서로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 여정이야말로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연대이자 실천입니다. 이번 연수가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올해는 ‘평화의 섬’ 제주가 선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온 섬이며,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그 뜻을 더욱 빛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25년 간 지속하여 온 한일교사대화가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양국 연대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교사대화가 ‘교류’를 넘어 한층 더 심화된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와타나베 마사코 일본교직원 방한단 단장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과 상호이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7일 동안 교육 기관 방문과 현지 교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올해 연수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공동의 사회적 노력으로서의 교육’과, 행복한 학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꼽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와타나베 노리히코 일본교직원 방한단 부단장

“저희는 국제적인 교육 교류를 통해 평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본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교류를 더욱 깊게 하여 이번 프로그램이 더욱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여자고등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00~9:20	환영행사 - 교악대 연주 - 학교장 환영인사 - 일본교직원 대표인사 - 기념선물 교환 - 일정 안내
09:20~09:40	학교 견학
09:40~10:10	수업 참관 (1학년 7학급) - 제주 문화, 교과 등 학급별 독립 주제 수업
10:20~11:10	일본교직원 수업 (1학년 7학급) - 일본 문화, 문학 등 학급별 주제 수업
11:30~12:20	점심식사 및 휴식
12:20~13:20	문화 교류: 한일 다도 문화 비교 체험
13:20~14:00	질의응답

야마자키 마코토 홋카이도 야쿠모정립 히가시노초등학교 교장

“삼성여자고등학교 방문 중 사회과 선생님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 외에도 ‘자국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관점을 반영해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사카구치 에리코 간세이가쿠인대학 센리국제학교중고등부 전임교사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다양한 선생님과 교류하며 교육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삼성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기르는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모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교육 방식을 직접 보고, 지역 교육이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우리 학교 수업에도 이런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이 가오리 나니와고등학교 교사

“한국의 학교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직원분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압도되었다.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 ‘교육의 본질’은 전 세계 공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그동안 제도와 관습에 얽매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부분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국 선생님들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창의와 노력을 다해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도전할 용기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겼다. (...)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내 안에 ‘교사로서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교사 인생을 이끌어줄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는 제가 이 경험을 현장에서 환원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다.”

표선고등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00~10:00	환영 리셉션 및 학교 소개 - 오케스트라 공연 - 학교장 환영인사 - 일본교직원 대표인사 - 기념선물 교환 - 학교 소개 - 기념사진 촬영
10:00~11:10	수업 참관: 모의 UN 발표
11:10~12:10	교사 간담회(1): 변화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공동체 - 수업 사례 발표 - 질의응답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00	교사 간담회(2): 변화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공동체 -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CAS(Creativity, Activity, Service) 사례 발표 - 질의응답

구보타 히로아키 나가노현 우에다고등학교 교사

“한국의 IB교육현장을 살펴보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고’, ‘학생과 함께 탐구하는’ 태도를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문제나 지역 이슈를 주제로 스스로 조사하고, 토론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점에서, 일본의 강의식 수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영어가 아닌 모국어(한국어)로 IB 교육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제적 시각과 자국의 문화·언어를 병행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IB의 근간에 있는 ‘탐구·다각적 사고·국제이해’는 현재 일본에서도 확산 중인 탐구학습과 주권자 교육과 깊이 맞닿아 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가와 게이 사도시립 미나미사도중학교 교사

“IB학교의 교육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독특했으며, 특히 국어 수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학기 동안 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에세이를 쓰는 구성은, 작품 속 ‘판타지’의 문제 상황을 현실의 우리 삶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깊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또한 교육 관련 기관과 학교의 밀접한 협력에도 놀랐다. 기관이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이 같은 노력은 일본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교사만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더 다각적이고 깊은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야마다 마키코 오사카부립 쓰루미상업고등학교 교사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이 번역앱이나 영어를 활용해가며 내게 열심히 자신들의 연구 발표를 설명해준 일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못해서 부끄러우니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보목초등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00~10:00	환영 리셉션 및 학교 소개 - 환영행사 (2학년: 난타 공연, 3~4학년: 오카리나 연주) - 학교장 환영인사 - 일본교직원 대표인사 - 학교 소개
10:00~10:20	학교 견학 (2개조)
10:50~11:30	일본교직원 수업(1~6학년)
11:40~12:20	1~2학년 담당 일본교직원: 점심식사 3~6학년 담당 일본교직원: 수업
12:25~13:05	3~6학년 담당 일본교직원: 점심식사 1~2학년 담당 일본교직원: 수업
13:05~13:10	기념사진 촬영
13:10~14:00	소천지 일대 트레킹

이코마 아키유키 나라시립 이치조고등학교부속중학교 교사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보목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문화 수업이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전통 놀이(팽이, 복웃음, 켄다마, 종이접기)를 함께 했는데, 아이들은 낯선 나라의 놀이에 눈을 반짝이며, 잘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아쉬워하며, 왜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번 도전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야마자키 마코토 홋카이도 야쿠모정립 히가시노초등학교 교장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보목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문화 수업과 그 뒤 이어진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보목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교육현장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요코우치 슌스케 도마코마이시립 우토나이초등학교 교사

“모든 프로그램 일정 중 문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보목초등학교에서 했던

수업은 여러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사토 준코 니가타현 무라카미시립 이와후네초등학교 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평화의 섬 제주도’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다. 활기찬 학교현장을 경험하며,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행복한 학교’,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도 화해와 평화를 바라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섬’이라는 해석을 나름대로 내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인화초등학교 방문

시간	일정
09:00~09:10	학교 도착 및 본관 2층 과학실로 이동
09:20~09:40	환영식 - 학교장 환영인사 - 학생 대표 환영인사 - 학교 현황 소개 (유인물로 대체) - 일본교직원 대표인사 - 기념사진 촬영
09:40~10:20	학교 견학
10:20~10:40	교실 이동 및 수업 준비
10:40~11:50	일본 교직원 수업 (6학년 7학급)
11:55~12:20	급식 체험
12:40~13:30	질의 응답 및 한국-일본 교직원 간담회 - 기초학력 연구학교 소개 - 질의응답

효도 가오리 에히메현립 호조고등학교 교사

“인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배움의 즐거움’과 ‘이해하는 기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교육의 근본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인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다.”

히라바야시 유토 고다이라시립 고다이라 제5초등학교 교사

“모든 프로그램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인화초등학교 방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교문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일본어로 힘차게 인사를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번 문화수업과 국제교류를 아이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히라바야시 유토 고다이라시립 고다이라 제5초등학교 교사

“인화초등학교 방문을 통해 아이들과 마주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인화초등학교에서 학습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한국 선생님과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에서는 게시물의 대부분이 완성된 결과물이나 작품 위주이며, 2~3개월간 그대로 붙여 두어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화초등학교에서는 게시판을 ‘이동하는 칠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을 알게 되었다. 이 아이디어를 참고해 2학기부터 바로 실천해보고자 한다.”

노모토 준이치 하마사키초등학교 지도교사

“인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학생들과 직접 수업시간을 함께해볼 수 있었고, 급식 시간과 쉬는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풀뿌리 단계의 현장 중심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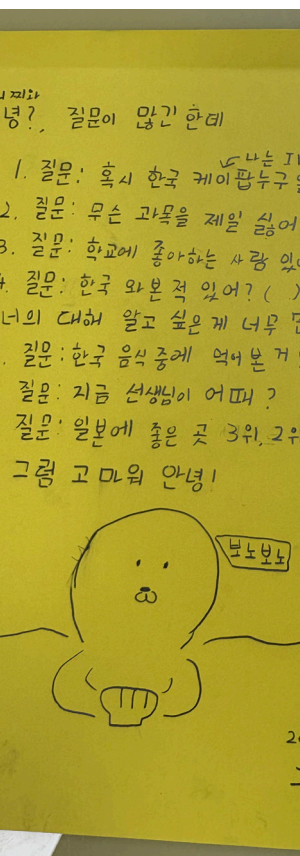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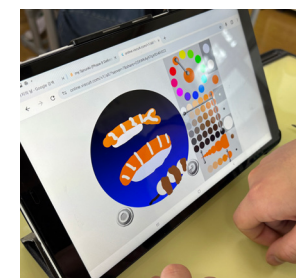
가정 방문

히키마 모에 효고현립 농업고등학교 교사

“가정방문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사용하면서도 결혼과 육아에 대해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다.”

후지타 에미 마치다시립 오야마초등학교 주임교사

“가정방문을 갔을 때 만난 아이들과의 교류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나는 아주 간단한 한국어와 영어밖에 할 줄 몰랐고, 아이들은 아직 다섯 살 정도로 한국어만 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손짓, 몸짓으로 소통하며 함께 종이접기를 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교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게 느껴졌다.”



야마시타 유카 이즈미시립 이즈미상업고등학교 교사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전보다 다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성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가정방문 중 한국 가족이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함을 통해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야마시타 유카 이즈미시립 이즈미상업고등학교 교사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한국 가정과 함께 보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따뜻한 시간’이었다. ‘다문화 이해의 첫걸음은, 대등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 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 이상의 깊은 깨달음이었다. 이 멋진 인연을 앞으로의 교육 활동에 꼭 연결하고 싶다.”

효도 가오리 에히메현립 호조고등학교 교사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동안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한국이, 물리적·심리적으로 모두 ‘가까운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방문 중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교육적 문제는 머지않아 한국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웃 나라로서 일본과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 이해를 더 깊이하고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면, 서로의 사회·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꿈키울래
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

시간	일정
14:30~14:45	환영인사 및 기관 소개
14:45~15:30	시설 탐방 및 체험
15:30~16:00	질의응답

데라시타 히로노리 오사카부립 센보쿠고등특수학교 교사

“AI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대부분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센터의 운영 이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센터장님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솔직하고도 매우 성실하게 답해주셨다. 이어 그것은 센터장님뿐 아니라 방문한 교사들까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덧붙이셨다. 이 대화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역시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방문

시간	일정
15:00~15:10	환영인사
15:10~15:30	기관 소개 및 질의응답
15:30~16:30	전체시설 견학 및 다문화교육강사 간담회

서귀포학생문화원 방문

시간	일정
14:30~15:10	환영인사 및 기관 소개
15:10~15:50	캘리그래피 체험: 한국어 이름 쓰기
15:50~16:00	전체시설 견학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방문

시간	일정
14:30~14:40	기관 소개
14:40~15:00	체험관 대표 체험물 소개
15:00~15:30	체험관 자유 관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산일출봉 방문**

시간	일정
9:00~10:00	성산일출봉 자유탐방
11:00~12:00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 - 4D영상 관람: “신들의 섬, 제주”(제주 설화 바탕 실사 입체영화) - 상설전시실 자유관람

제주4·3평화기념관 방문

시간	일정
13:30~15:30	영상 및 전시실 관람
15:30~16:00	전문가와의 대화 및 질의응답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하야시 마미 일본체육대학 가시와고등학교 교사

“4·3 평화기념관의 ‘백비’가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이번 기념관 방문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눈앞에 서 있던 차갑고 하얗게 보이는 백비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역사 속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다는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백비는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

고자 다마키 이시가키시립 도노시로초등학교 교사

“프로그램 중 4·3 평화기념관이 가장 인상 깊다. 일본 패전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전시 중의 일들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제주 4·3이 오키나와에서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있어 오키나와의 선생님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최측에서) 우리를 4·3 평화기념관에 데려갈지 고민하셨다고 들었지만, 저는 데려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와다 다카시 사이타마현립 이와쓰키하루카제특수학교 교사

“이번에 처음으로 4·3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높은 투표율도 4·3이나 광주에 대해 알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미국 점령기 동안 총파업 중지, 레드 퍼지, 안보투쟁 등 비슷한 배경이 있었기에,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었을지 일본과 비교하며 계속 고민해 보고 싶다. 평화에 대해서도, 한국은 휴전 중이 곧 전쟁 중이라는 현실 속에 있기에 병역의 무게를 느꼈다. 또한 일본의 안보 역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나라, 언어, 나이, 장애 등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이번 연수는 어쩌면 나도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다.”

제주해녀박물관 탐방

시간	일정
13:00~13:50	제주해녀박물관 자유탐방
14:00~15:30	한일교사 “해녀를 만나다”

나카노 미즈키 도쿄과대학부속과학기술고등학교 보건교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느꼈다. 첫째, 내 눈으로 보고 느낀 한국과 일본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차이다. 일본이 한국을 보도할 때는 반일 시위 장면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이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보도를 접하며 나 역시 한국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프로그램 관계자는 물론 택시 기사님, 동네 식당 주인분들까지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기보다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둘째,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의 필요성이다. 나는 ‘일본은 미국에 원자폭탄을 투하당했지만, 오늘날 미국인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왜 한국에서는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까지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4·3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녀박물관에서 식민지 시대의 차별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은 남북분단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이어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에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한일 역사란 1910년 한일병합, 위안부 문제, 1945년 일본 패전과 함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 이 세 가지뿐이었다. 일본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국에 사과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셋째, 한국 교사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소중함이다. 같은 학교나 같은 도도부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져 시야가 좁아지기 쉽다. 이번에 한국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 앞으로는 외부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서 나의 생각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싶다.”

한일교사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

1일차 7월 18일(금)

시간	내용	연사/진행
14:00 -14:05	환영인사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장 야마모토 츠요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등서기관
14:05 -14:30	[여는 이야기] 한일교사대화 25년 돌아보기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역연대본부장 이토 다에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주임
14:30 -15:00	[생각의 씨앗 심기] 협력과 연대로 나아가는 한-일 교육공동체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팀장
15:00 -15:30	[지혜 모으기] 무엇을 넘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	네기시 가즈나리 시오가마고등학교 교장 전혜인 문산수익고등학교 교사
15:50 -17:00	[우수사례 나누기] 협력과 연대의 경험, 교육현장으로 이어지다	강병일 부산성우학교 교장 와타나베 마사코 시코쿠 중앙시립 나카노소 초등학교 교장 공은성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채희창 함창중학교 교감
17:00 -18:00	[경험·계획 나누기] 한일교사가 함께 나누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	모든 참가자 - 한일교사대화 후속활동·계획 소그룹 발표

2일차 7월 19일(토)

시간	내용	세부내용
9:00-10:00	[힘 모으기] 함께 만드는 세계 평화의 날	일본교사 후속활동 계획 공유 및 한일교사 공동활동 협력 논의
10:00-10:30	[맺는 이야기]	소감 발표

우스다 유리 나가노현 노자와키타고등학교 교사

“포럼에서 한국 선생님들과 현재 직면한 문제를 논의할 때,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 예산 문제’,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잘되지 않는다’ 등 많은 점에서 공통된 과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 교장 선생님과 대화할 때,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졌고,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하나하나에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니 이제 곧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공부를 잘 한다고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일본과 한국 모두 학력 사회이지만, 마음의 돌봄이나 공부 외의 측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와다 다카시 사이타마현립 이와쓰키하루카제특수학교 교사

“부산의 특수학교 교장인 강병일 선생님께서 포럼 중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학교 차원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들과 그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깊이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하야시 마미 일본체육대학 가시와고등학교 교사

“개인 여행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알아볼 수 있었고, 환경이나 평화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의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를 느끼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며,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미래의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또한 포럼을 통해 같은 교사들끼리 교육 관련 과제나 실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학교간 국제교류 제안도 그 자리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어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실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속활동계획 발표 및 폐회식

와나베 마사코 단장 및 A그룹 대표 (시코쿠추오시립 나카노쇼초등학교 교장)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감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보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꼭 교육 현장에 살려주시고, 우리의 연결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타나베 노리히코 B그룹 대표 (조에쓰시립 야치호중학교 교장)

“모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연수에 임해주시고 또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오신 분들이어서 저 역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후케 마유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학교정보기반교재과 계원

“이런 귀중한 경험들이 가능했던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결’이 앞으로 우리의 교육에 아주 많은 힘을 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이 연결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마모토 미쿠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프로그램담당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국제 교류의 현장에 올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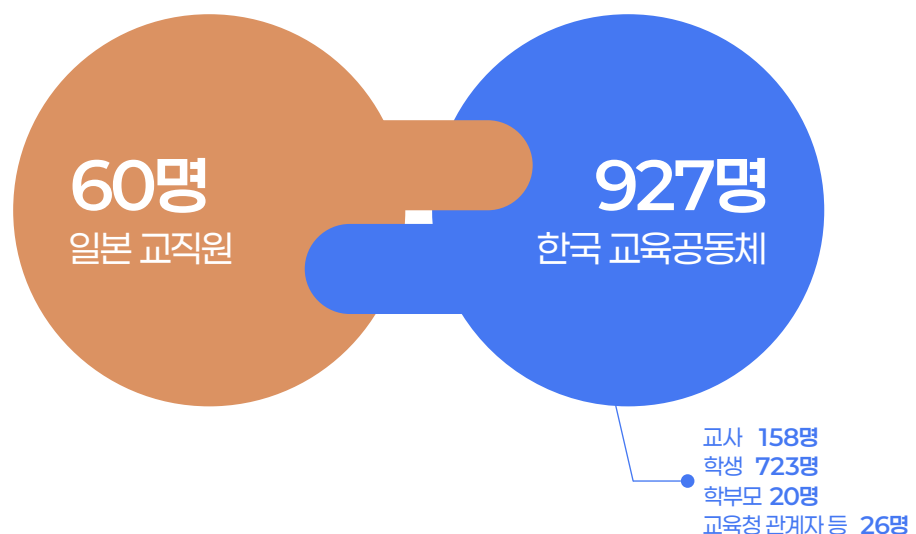
안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육현장이 교사들에게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사입니다. 이번 경험이 여러분들 교실에서 행복하게 펼쳐지기를 멀리 제주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25년 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그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의 길지 않은 만남과 대화였지만, 앞으로도 25년, 50년, 100년, 양국의 선생님들이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인연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기간 중
국제교류 참여인원





03. 협력학교 소감

보목초등학교

한-일 간의 우정: 동시대를 사는 교육자로서 함께하기

문기혁 | 보목초등학교 교감

2025년 봄, 교육청을 통해 “한일교사대화: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협력학교로 보목초등학교가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일본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공유한 경험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은 있었다. 김용민 교장선생님과 교직원회의를 거쳐 학교의 국제교육 실천 사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논의했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준비 과정 - ‘보목초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의 핵심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미래교육 철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IB PYP) 후보학교로서의 탐구 중심 학습, 예비 유네스코학교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학교문화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 교사들은 방과후마다 모여 의견을 나눴다. 6학년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음악 전담교사는 “한국적인 환영 공연에서 아이들이 평소 배워온 난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도 적극 나서 “일본 선생님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 저녁을 함께하자”며 가정 체험 프로그램을 자원했다. 그 열정이 참 고마웠다.

실행 과정 - 7월 16일의 생생한 하루

아침 9시, 일본 교직원 30명이 교문을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일본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일본 선생님들의 얼굴에 놀람과 환한 미소가 동시에 피어났다.

김용민 교장선생님의 학교 소개에 이어 전학년 교실에서 일본선생님들의 문화교류 수업이 실시되었다. 아이들은 평소 몰랐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친숙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통해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였으며, 일본 전통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류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기도 하였다. 점심은 친환경 ‘K-급식 체험’이었다. 제주산 식재료와 건강식 위주 식단을 맛보신 일본 선생님들이 “이런 급식이 가능하다니 놀랍다. 일본에서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 꼭 참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쉼터 트레킹이 진행되었다. 땀을 흘리며 걸은 후 보목초 주변의 환경을 탐방하면서 학생과의 마을탐방 체험학습 등을 소개하자 일본 교사 한 분이 “아이들이 지역과 환경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을 보고 있다”고 감탄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가정 방문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보목초등학교의 열 개 가정이 일본 교직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일본선생님이 방문한 한 집에서는 본교 3학년 학생이 일본 손님에게 “이건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예요. 매워도 조금만 드셔보세요”라고 소개하자 모두 웃음꽃이 피었다. 식탁 위에서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의 학교생활을 비교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 같았다. 일본 선생님들은 “학교와 가정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는 드물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남겨진 울림

행사가 끝난 뒤 본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배움을 당당히 표현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국제교육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는 소감이 이어졌다. 학부모들도 “우리 집이 교육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게 뿌듯하다”며 만족해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일본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칭찬해줘서 기뻐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도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일본 교사가 한 말이다.

“보목초에서는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그 자체가 행복한 학교”라고 답했다.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에서 교육자로서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보목초 교육 철학을 세계와 나누는 과정이었다. 교감으로서 한 달 넘게 준비하며 부담도 컸지만, 행사가 끝난 뒤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니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했다.

2025년 7월 16일, 보목초의 하루는 그 어떤 수업보다 값진 배움의 장이었다. 교육은 교실에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의 협력학교와 온라인 공동 수업, 학생 작품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이 높았던 환경·ES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감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이 경험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보목초를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열린 학교로 더 단단히 세워가고 싶다.



인화초등학교**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고효림** | 인화초등학교 교사**설렘 속 첫 만남**

7월의 제주는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섬을 감싸 안았다. 2025년 7월 14일, 이날은 오래 기다려온 ‘2025 한일교사대회’의 시작, 일본 교사들과의 첫 만남이 있는 개회식 날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인사를 건네는 표정 속에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같은 마음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이들 중 나는 유일한 한국 교사였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용기를 내어 제주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주의 바다와 산,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전하자 일본 교사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짧은 대화였지만,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따뜻한 연결이 이루어졌다.

제주의 거리에서 피어난 우정

환영만찬이 끝난 뒤, 나는 일본 교사 몇 분을 모시고 제주 더원호텔 주변 누웨마루거리를 함께 걸었다. 우리는 떡볶이, 어묵 같은 한국 간식을 맛보며 웃음을 나누었고, 화장품과 생활용품, 캐릭터 굿즈를 구경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생활문화 차이와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따뜻한 환영, 인화초에서의 만남

마침내 7월 16일, 인화초등학교가 일본 교사들을 맞이하는 날이 왔다. 아침 햇살이 운동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학교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분주히 환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본관 2층 과학실에서 열린 환영식은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일본 교사들은 입구에 전시된, 인화초 학생들이 일본어로 손수 작성한 환영카드를 읽으며 깊이 감동했다. 카드에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일본어 인사와 그림이 있었고, 이를 본 일본 교사들은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장 선생님과 학생 대표가 일본어로 직접 환영 인사를 건네자 놀라움과 박수가 터졌다. 학생 대표의 또렷한 인사와 일본 교사 대표의 감사 인사까지 이어지며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환영식 후, 두 팀으로 나누어 학교를 둘러보았다. Wee클래스(상담실)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 일본 교사들이 감탄했고, 교육복지실에서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체육관에서는 본교 학생들이 전국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 현수막을 지켜보며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치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직접 재배하는 화분들을 보았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는 합주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 감탄이 이어졌다. 보건실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건강 프로그램에 놀라워했고, 돌봄교실에서는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교실 속 문화 교류

이후 6학년 교실에서 기다리던 ‘일본 문화 수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교사들이 환한 미소로 들어섰고,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첫 활동은 간단한 일본어 인사 배우기였는데, “오하요우고자이마스”를 따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설렘이 묻어났다. 이어서 일본의 계절과 학교생활, 전통축제 등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사진과 영상에 맞추어 학생들의 감탄이 터져나왔다.

다음 순서는 학생들이 특히 좋아한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였다. 유명 작품 속 장면이 화면에 펼쳐지자, 학생들은 주인공 이름을 맞히며 즐겁게 웃었고, 일본 교사들은 등장인물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해 주었다. 또 한쪽에서는 ‘켄다마’와 ‘오테다마’ 같은 일본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활동이 열려, 아이들이 직접 공을 던지고 받으며 깔깔대는 소리로 교실이 가득 찼다.

이 모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우리 학교의 일본인 다문화 학부모의 헌신적인 통역 덕분이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웃음과 표정을 담아 전달해준 학부모 덕분에 학생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했고,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질문에 기쁘게 답할 수 있었다.

그날의 교실은 단순히 지식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마음이 이어지는 교류의 장이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과 일본 교사들의 따뜻한 미소, 서로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진정한 ‘만남’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함께 나눈 식사와 놀이

점심 메뉴는 제주돼지고기 수육과 상추쌈, 김치전, 고사리닭개장, 카프레제샐러드, 감귤, 한우잡채였다. 일본 교사들은 정갈하고 맛있는 급식에 놀라워했고, 무상 제공이라는 사실에 감탄했다. 식사 후 잔반 줄이기 AI 스캐너를 보며 환경교육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점심 식사 후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과 복도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어울렸다. 특히 6학년 학생들과 피구 경기를 하며 웃음과 탄성이 이어졌고, 교실에서는 번역기와 영어를 활용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적극성에 감탄했고, 학생들은 일본 교사들의 친근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교사 간의 대화 시간

오후에는 교사 간 간담회가 열렸다. 나는 인화초가 기초학력 연구학교로서 하고 있는 노력과 교사·학생·학부모·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구조를 소개했다. 일본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기고,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서로의 교육현장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가정에서 이어진 현대, 가정 방문

저녁 무렵, 일본 교사들은 인화초등학교 10개 가정에 나뉘어 가정 방문을 떠났다. 이번 가정 방문을 신청한 학부모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분들이었다. 덕분에 일본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소개해주며 생활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떤 가정은 교사들을 관광지로 안내하고, 어떤 가정은 동네 산책을 함께하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밤늦게 학교로 돌아온 일본 교사들의 얼굴에는 따뜻함과 행복이 묻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다. 교사들이 출국하는 날에는, 제주공항까지 선물을 가득 들고 배웅하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는 가정도 있었다.

교육은 사람을 잇는 일

마지막 폐회식 날, 나는 소감문 발표 대신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했다. 행사 준비로 지쳤던 순간도 있었지만, 화면 속 일본 교사들의 웃음과 학생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보면 모든 수고는 보람으로 바뀌었고 ‘교육은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믿음이 다시금 깊이 자리잡았다. 일본 교사 방문 준비부터 행사 진행, 가정방문까지의 기록을 사진과 영상에 담았다. 편집을 하며 행사 준비로 지쳤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화면 속 일본 교사들의 환한 웃음과 학생들과의 따뜻한 교류 장면을 보며 모든 노고가 보람으로 바뀌었다. ‘이래서 교육은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믿음이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영상을 본 일본 교사들은 “이 하루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고, 그 말은 내게 큰 감동과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여 한국 음식을 나누고 맥주잔을 부딪치며 일주일 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 만남이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남겼음을 확인했다. 밤공기는 시원했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다. 짧지만 깊었던 이번 만남은 서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날의 웃음과 배움, 그리고 따뜻한 손길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삼성여자고등학교**바로 지금, 모두의 행복한 학교****송한귀** |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사**방문 결정을 내리기까지**

처음 일본 선생님들의 방문이 가능하겠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교육청 측에서도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았기에, 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사실 우리 학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IB과정과 같은 특별한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학교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늘 호기심이 가득했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으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교의 편안한 분위기를 믿어보기로 했다.

행사를 준비하며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한 것은 선생님들이 머물 장소와 오후 프로그램이었다. 장소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4층 도서관을 대기장이자 행사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바다와 섬이 보이는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 드리고 싶었고, 아이들이 늘 북적이고 웃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공간은 학교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오후 프로그램인 문화 교류 행사는 연구부장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차담회’였다. 보통 외부 손님을 맞이할 때는 학교든 개인이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려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개성이 없고 ‘공적’이기에 식사 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차 문화를 전문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기에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도 했지만, 졸업생의 도움을 받아 ‘차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마침 자율주간이어서 수업은 학급별 기획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있는 한 학급, 그리고 일본 교육과정이 궁금한

교사 한 학급에 대해서만 일본교사들에게 수업을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모두가 손님 방문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기꺼이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학생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급 회의를 통해 일본 선생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수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했다. 일본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일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행사 동안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였다. 강렬한 인상보다는 서귀포의 바닷바람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어려움과 배움이 공존한 행사 당일

행사 당일, 작은 문제들이 이어졌다. 일정이 지체되고, 수업 방문 공지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선생님'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학생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바람에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밀려, 오메기떡과 감귤 과줄 만들기 활동은 학생 없이 진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정말 활기찼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행복해하고 있었다. 조용히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묻고 일본 선생님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답해주는 어느때보다 즐거운 수업이었다. 그런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시설 견학은 절반만 진행할 수 있었고, 급식도 학생들이 오기 전에 손님들께 먼저 드리려던 계획이 어그리졌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자 오히려 활기가 돌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선생님들도 즐겁게 어울렸다. 조용한 식사 시간은 없었지만, 웃음과 소란 속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앞서 준비한 차담회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 일본 선생님이 일본 차를 소개하고, 제주 말차, 녹차, 꽃잎차 시음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은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그 중, 지역교과서 제작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지역교과서란, 우리 학교의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전통 문화나

지속가능한 환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학생들이 제작한 교과서이다. 주제 선정부터 원고 제작까지 학생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 하던 선생님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수행평가 주제나 연구 주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면에서 양국의 교육적 인식 차이를 알게 되었다. 반면 AI의 활용과 제한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던 부분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의 지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올바르게 AI를 활용할 있도록 사용 방법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오고 갔다.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공감하며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마치며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선생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학교 자체, 우리의 태도와 모습까지 되돌아보며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고 했는데, 그러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또 일본 선생님들과 서로 다른 점, 그리고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즐겁고 행복한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기뻐다. 국가나 지역을 떠나 학생들을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그날 우리 학교는 행복한 학교였다.



표선고등학교

시작, 또 시작

이유래 | 표선고등학교 교사

시작

2023년,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43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며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존재가 있었다. 바로 ‘재일제주인’이었다. 그때부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오사카를 종종 오가며 일본과 한국의 현대사를 ‘재일제주인’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던 중, 올해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했다. 교육청과 일본 관련 기관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쉽지 않았다. 실망이 커져 포기하려던 찰나, 교감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선생님, 일본 교류에 관심 있죠?”

그 말씀과 함께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다. 그것이 ‘한일교사대화’의 시작이었다.

무엇을 보여줄까

첫 온라인 준비회의가 있었다. 일정, 예산,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세세한 사항들을 꼼꼼히 안내받았다. 화면 속 설명을 들으며 ‘이걸 다 소화하려면... 꽤나 골치 아픈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스쳤다. 동료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고민은 “IB 학교, 그리고 표선고라는 특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다. 몇 날 며칠을 곱씹다 결국 결론을 내렸다.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바로 ‘도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교류는 프로그램 주제인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와 맞물리도록, 학생들의 도전과 협력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마움

한일교사대화 준비의 핵심은 ‘프로그램 기획’이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 하지

만 다행히 학년부 선생님, 교장·교감 선생님, 교무·연구부장님은 물론, 음악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까지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셨다. 그 덕분에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에도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들과도 꾸준히 의견을 나누며, 점점 ‘그럴듯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첫 만남 - 더 깊어진 고민

7월 14일, 한일교사대화 기념 만찬회가 열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만찬’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녁만 빨리 먹고 학교로 돌아와 다음 날 있을 프로그램과 공간을 최종 점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식사만 생각하고 들어간 자리에서, 일본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단번에 바꿔 놓았다. 어떤 선생님은 명함에 한국어와 영어까지 함께 병기하며 “앞으로의 교류를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선생님은 나를 ‘역사 교사’라고 소개받자 일본 역사 교과서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도 꼭 보고 싶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알아간다면, 그래도 미래는 조금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방금 전까지 맴돌던 ‘만찬’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구나.

어쩌면 더 나은 역사를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실행 - 우리는 관심을 거야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한 아침, 일본 선생님들을 중앙현관에 들어서시는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맞이했다. 이어 1·2학년 수업을 참관하셨는데, 마침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라 학생들이 한껏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학생들과 일본 선생님들이 서로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온갖 노력을 하며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안도감과 함께 흐뭇한 미소가 흘렀다.

하지만 그 안정감도 잠시, 내가 맡은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CAS(Creativity, Activity, Service) 사례’ 발표 차례가 다가오자 다시 긴장이 몰려왔다. 발표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와 ‘재일제주인과 4·3’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식 행사에서 꺼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결국 마음속에서 이렇게 답했다.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시작은 중요하다. 괜찮을 거야.’

난 약간 상기된 표정과 긴장감으로 발표를 시작했고 발표가 끝나자 일본 선생님들은 진지한 질문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전부터 일본과 한국의 역사 서술을 학생들이 함께 비교하며
교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함께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머릿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을지도 몰라.’

또 하나의 시작

교류가 끝난 후, 이메일과 줌회의로 몇몇 일본 선생님들과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나눴다. 그 결과 ‘한일 역사 교과서 비교 연구 프로젝트’, ‘4·3 독서 교류 프로젝트’가 새롭게 기획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되, 그렇다고 느슨하지 않도록’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시작의 힘

대학생 시절, 일본 외무성이 주관한 프로그램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록과 청산’을 이야기하다 면접관에게 혼이 났다.

“과거에 얽매어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책이었다. 반박하지 못한 나는 뽀루뽀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왔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떠올랐다. 그 때마다 속으로만 대답을 못한 자신을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이번 ‘한일교사대화’를 경험하며 그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시작에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은 과거를 올바르게 마주하는 것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25주년 한일교사대화가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설렘이 든다.



04. 종합평가

참가자 설문결과
주요내용

1. 한일교사대화 참가 전/후 변화

1) 한국에 대한 관심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매우 약한 관심	0	0
약한 관심	1.8	0
다소 약한 관심	5.4	0
중간 정도의 관심	26.8	0
다소 강한 관심	26.8	3.6
강한 관심	23.2	25
매우 강한 관심	16.1	71.4
참가 후, 한국에 대한 매우 강한 관심 71.4%, 강한 관심 25%, 다소 강한 관심 3.6%		

2)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전혀 모름	10.7	0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음	50	0
보통 정도로 알고 있음	17.9	5.4
어느 정도 알고 있음	19.6	78.6
매우 잘 알고 있음	1.8	16.1
참가 후, 한국 교육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 16.1%, 어느 정도 알고 있음 78.6%, 보통 정도로 알고 있음 5.4%		

3) 국제교류와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관심도 변화

	참가 전 (%)	참가 후 (%)
매우 약한 관심	0	0
약한 관심	0	0
다소 약한 관심	3.6	0
중간 정도의 관심	3.6	0
다소 강한 관심	28.6	1.8
강한 관심	32.1	12.5
매우 강한 관심	32.1	85.7

참가 후, 국제교류와 국제이해교육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 85.7%, 강한 관심 12.5%, 다소 강한 관심 1.8%		
---	--	--

2. 한일교사대화 참가 후 영향

1)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한국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했다고 느낀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46.4%	41.1%	12.5%	-

2)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일본 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했다고 느낀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67.9%	30.4%	1.8%	-

3)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교육 활동과 실천에 적용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75%	23.2%	-	1.8%

4) 이 경험을 나의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76.8%	21.4%	1.8%	-

5) 나의 학교/기관에서 국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추진하고 싶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58.9%	28.6%	8.9%	1.8%

3.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

Q. 이 교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다소 동의함	기타
92.9%	7.1%	-	-

05. 언론 보도





한일 교사들, 제주시 '협력과 연대의 교육공동체' 논의

연합뉴스, 7월 5일



일본 교원 60명 제주 방문...한일 교육 협력 모색

뉴시스, 7월 13일



교육으로 잇는 한-일, 한일 교사 제주에서 교육협력과 연대 논의

교육부 블로그, 7월 13일



한일 교사들 제주에서 교육협력 등 논의

한국교육신문, 7월 14일



교육부, 교육으로 잇는 한-일,한일 교사 제주에서 교육협력과 연대 논의

코리아타임뉴스, 7월 14일



제주 찾은 일본 교직원 제주교육 문화 속으로 빠지다

뉴스N제주, 7월 14일



일본 교사들, 제주 가정서 저녁 식사'민간 교류' 나서

뉴스프리존, 7월 14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60명 일본 교사 방한...교육 협력의 장 열려

뉴스탭, 7월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개최

뉴시스, 7월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일본 교직원 60명 방한...제주 일정 시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 7월 15일



한일교사대화: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개회식

연합뉴스, 7월 15일



일본 교사 60명, 제주 찾아...한일 교육교류 25주년, 평화와 연대의 씨앗 뿌린다

피앤피뉴스, 7월 16일



제주에서 친환경 급식 맛본 일본 교사들의 반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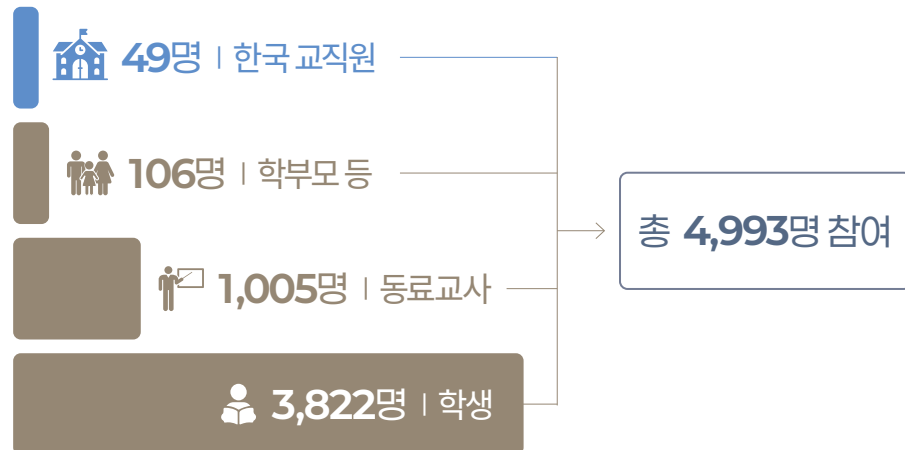
제주의소리, 7월 22일



IV. 교육현장 후속활동 결과

- 01 한국교직원 후속활동
- 02 일본교직원 후속활동
- 03 후속 국제교류 현황

01. 한국 교직원 후속 활동



채희창 함창중학교 교감

<교직원 연수 중 한일교사대화 경험 공유>

“함창중고등학교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서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해 안내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현장의 문제와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현장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은성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유네스코학교 활동 추진>

“2025학년도에는 유네스코학교 운영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미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짧게나마 지난 1월과 7월에 진행된 한일 교사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일본 연수와 일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느껴졌던 일본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김민희 백사초등학교 교사

<교내 세계문화축제 중 일본 문화체험 부스 운영>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에서 직접 체험한 일본 학교생활과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을 3월에 진행했다. 일본 학생들의 생활 모습, 전통 놀이 체험 등을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여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이 일본 전통 놀이(카루타, 후쿠와라이, 켄다마)를 직접 체험하며 흥미롭게 참여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8월 교내 세계문화축제에서 일본 부스를 맡아 운영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본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히 놀이 규칙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학교 문화를 상상하며 궁금증을 확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일본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이런 놀이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며, 놀이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을 이해하는 통로’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친구들에게도 한국 놀이를 알려주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단순한 놀이 체험을 넘어 국제적 감수성과 교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다가오는 2학기 일본 학교와의 국제교류 활동에 학생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홍선미 상명고등학교 교사

<일본의 예절문화를 영어 수업 중 연계 지도>

“일본초청연수에서 경험한 일본의 기본적인 예절 문화를 고등학교 3학년 영어Ⅲ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했다. 2025년 5월, 본교 3학년 1반부터 5반을 대상으로 총 5차시

(각 50분)를 운영하였으며, 영어II 부교재의 “The Cultural Identity of Italy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Way of Life” 지문을 기반으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를 일본으로 확장했다. 수업에서는 일본의 오모테나시(환대) 정신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인사와 존중 표현, 가정의 식사 예절, 공공장소의 질서와 청결 유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생들은 일본어 인사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을 실제 자료와 함께 비교하며, 언어와 문화가 결합된 예절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사들이 학생 지도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타문화 학습을 넘어 자신의 생활 태도와 예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수업은 ‘교과 지문 분석→일본 예절 문화 사례 제시→학생 참여 실습’의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모듈별 상황극을 통해 예절 실천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 과정에서 한 학생은 “우리 학교 건물 입구 및 교실에도 이런 예절 관련 팸말을 붙이자”는 의견을 내었고, 다른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수업을 참관한 동료 교사들도 일본의 예절 문화를 교육적으로 접목한 사례가 학생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 속에서 학생들의 태도 변화와 생활지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실감했다.”



김해외고와 신코-다치바나고등학교의 국제교류

최은숙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본교는 자매학교가 두 곳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담당 교사의 잦은 변경으로 교류가 단절되면서 6년 만의 일본 수학여행에서 방문할 학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중 방문한 고베 신코-다치바나고교에서의 수업 경험이 매우 뜻깊었기에, 본교 학생들도 같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타쿠라 선생님께 연락해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를 본격화했고, 특히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4월 초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구체적 협의가 이어졌다. 자매학교는 아니지만 본교 학생 47명이 방문하는 일정이었기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타쿠라 선생님이 제안한 ‘자국·지역 소개 소책자’ 활동을 수행평가로 연계하여, 본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일본어 소책자를 활용하여 교류에 참여하게 된 점은 의미를 더했다.

또한 방문 전 사전 교류를 위해 본교 영일과·일영과 학생 47명과 신코-다치바나고교 학생 간의 온라인 교류를 제안하였고, 이타쿠라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6월 5일,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 본교 학생들은 학교생활, 양국의 인기 문화, 서로의 인상, 향후 함께 하고 싶은 활동 등을 주제로 준비했으나 두 반이 동시에 참여하다 보니 장비 및 진행 흐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준비한 내용을 모두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대면 교류에서 이어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동아시아 문화권 체험과 자매결연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건문을 넓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다’라는 목표 아래 10월 20일부터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었다.

신코-다치바나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환영인사와 일정 안내를 받은 뒤 일본 학생들보다 먼저 급식소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동안 일본 학생들의 권유로 달걀말이를 맛보고, 지나가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일본 학교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5교시에는 자기소개와 학교·진로 소개를 일본어로 주고받고, 종이접기 설명서를 보며 휴지통을 함께 접었다. 학생들은 완성한 작품이나 준비해온 엽서를 선물했고, 6교시에는 일본 학생들에게 질

문을 하고 종이접기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하트 모양 종이접기를 함께 하며 서로의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 주고 연락처도 나누며 교류가 한층 확장되었다. 사전 준비 덕분에 학생들은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며 실제 의사소통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7교시에는 전교학생 모임을 함께 했는데, 전교생 앞에서 본교 학생들이 한국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신코다치바나고교의 취주악·경음악 공연이 더해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일본 학교의 큰 무대에서 공연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본교 대표 학생이 영어·일본어로 소감을 발표하며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교류 종료 후에도 일본 학생들이 복도에서 본교 학생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동아리 견학이 이어졌다. 모든 동아리를 둘러보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버스가 떠난 뒤에도 달려와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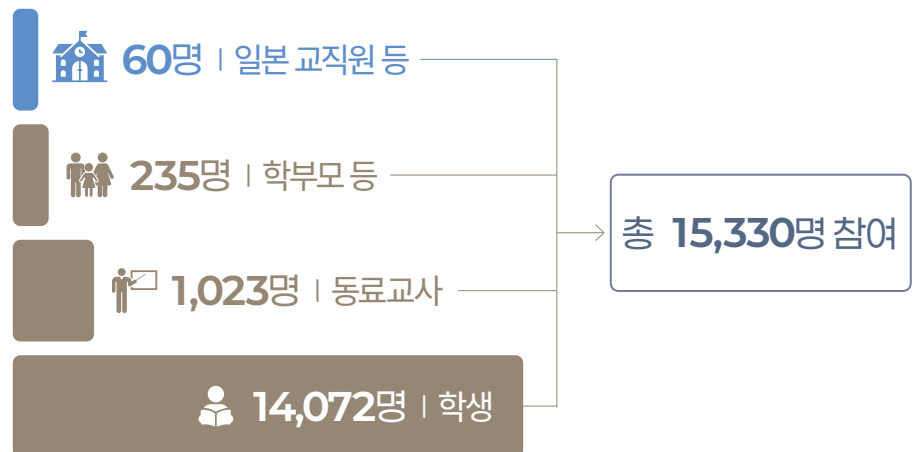
“신코다치바나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일본 고등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문화를 공유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었다.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일본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방문한 학교는 그 기대 이상으로 따뜻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셔서 방문 직전의 긴장이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친근하게 해주어 고맙웠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급식 체험을 했는데 모두 맛있게 먹었고, 특히 한국과 달리 활발하게 운영되는 일본의 부활동(방과후 동아리 활동)이 인상 깊었다. 직접 체험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지만, 하루 동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2학년 3반 이00 학생

“신코다치바나고교에서 보낸 하루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귀중한 시간이었다.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작은 배려 하나가 큰 감동을 준다는 것도 배웠다. 포트 타워에서 바라본 고베의 하늘처럼, 신코다치바나고교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2학년 5반 홍00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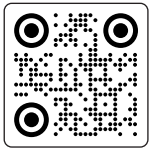
02. 일본 교직원 후속 활동



다카다 신타로 고세이학원여자중고등학교 교사

<한일 교사 독서 클럽>

“연수 후반부의 교사교류 때, 표선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같은 날 제주 제주43평화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하여 제주43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독서 클럽’ 형식으로 감상 공유와 의견 교환을 해보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본 참가 교원들에게도 안내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일본 교원들은 귀국 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일본어 번역본을 각각 구입하여 완독하였다. 귀국 후 약 한 달이 지나 Zoom으로 진행된 독서 클럽은 서로 번역 앱을 사용해야 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나,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제주43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문학의 힘을 느꼈다. 현장 방문과는 또 다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시 제주를 방문하고 싶어졌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책으로도 꼭 다시 독서 클럽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한일 교사 모두에게서 나왔다. 또한 일본 교사들이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여러 권 읽게 되는 등 좋은 자극이 된 것으로 보였다. 한국 교사들로부터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으로 독서 클럽을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역방송국
취재 영상

와타나베 마사코 시코쿠추오시립 나카노쇼초등학교 교장

<온라인 공동수업>

“한국 만대초등학교와 총 3회의 온라인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서로의 학교 생활을 소개하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 등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았다. 첫 온라인 교류수업이었지만, 일본어와 한국어로 인사하고 질문하며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다. 2회차, 3회차 수업에서는 미술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만대초등학교의 전예린 선생님께서 한국의 ‘봉산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주셨다. 한국 선생님으로부터 준비물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롭게 색칠하거나 종이를 붙이며 제작하였다. 재료(가면 틀과 한지)는 전예린 선생님께서 8월에 본교를 방문하셨을 때 5학년 학생 수에 맞추어 직접 가져다주셔서 의미가 크다. 양국의 학생들이 개성이 담긴 작품을 제작하고 서로 감상함으로써,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친근감을 가지며 공동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미야마 준 나가노현 나가노요시다고등학교 교사

<온라인 프렌드 토크 & 온라인 피스 토크>

“한국의 표선고등학교와 교류하며, 양국의 교과서를 서로 보내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일 역사 교과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10월 20일의 교류는 ‘온라인 프렌드 토크’로 명명하여,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학교 소개 및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11월 10일에는 ‘온라인 피스 토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 비교 및 학습회, 필드워크 성과 발표 등을 실시했다. 한국초청연수에 함께하여 인연이 이어진 일본선생님들,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을 계기로 알게 된 분들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이 참관했다. 양교의 발표에 이어, 와세다대학교 오히나타 스미오 명예교수께서 미니 강연을 해주셨다. 또한 다음 교류를 위한 제안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온라인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과 참관한 교육자들의 소감을 공유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학습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고, 일본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싶다.”

나가노요시다고등학교 2학년 학생

“나와 같은 17세 소녀가 (성)행위를 강요받은 일이 가슴 아프다.”

나가노요시다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에 대해, 자국 중심적인 시각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표선고등학교 학생

“양교 학생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활동에 감복하고, 또한 큰 격려를 받았다. 특히 요시다고 학생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와세다대학교 오히나타 스미오 명예교수

“양교 모두 충실한 준비와 깊은 성찰로 매우 좋은 교류였다고 느꼈다. 특히 요시다가 현장조사를, 한국 측이 IB를 통한 탐구를 수행하여, 서로 다른 방법이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고 느꼈다.”

참관한 모 대학 교수

“소개된 교과서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익숙한 교과서의 서술이 국가에 따라 이토록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단순한 교과서 비교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평화의 주체가 되어갈 모습이 상상되어 두근거렸다. 요시다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고 했지만,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교육 실천을 위해 힘내고자 한다.”

참관한 한국초청연수 참가 일본교사



야마시타 유카 이즈미시립 이즈미상업고등학교 교사

<지역 어린이식당에서 한국 메뉴 제공>

“지역 내 어린이 식당(‘아이-어른 건강급식소’)의 여름방학 기획 ‘고등학생 챌린지 급식소’에서, 한국초청연수 중 제주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쌀가루로 만든 전과 미역국을 제공했다. 지역에서 재배한 채소와 한국산 미역 및 조미료를 사용하여 고등학생들과 함께 요리했다. 이 요리는 남녀노소 40명이 시식하였으며, ‘레시피를 알고 싶다’, ‘제주도에 가고 싶다’라는 반응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참여자들과 이웃나라와의 ‘평화’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미역국과 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손님 중 다수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03. 후속 국제교류 현황

부산성우학교 🇰🇷 ↔ 코다이라 특수학교, 이와츠키 하루카제 특별 지원학교 🇯🇵

일본 특수학교와의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도 이어지고 있음. 12월 중 일본교사 4인이 학교 방문 및 교류 예정임.

만대초등학교 🇰🇷 ↔ 시코쿠쥬오시 나카노쇼 초등학교 🇯🇵

8월에는 직접 일본 나카노쇼 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9월에는 온라인 교류를 진행함.
12월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대면 프로그램을 준비중임.

보목초등학교 🇰🇷 ↔ 미도리카오카 초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사업을 통해 미도리카오카 초등학교와 학교 단위 국제교류를 2025년 11월 시작할 예정임.

인천별빛초등학교 🇰🇷 ↔ 고베 스미요시 중학교 🇯🇵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인천별빛초등학교 2학년 6반과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함께 자기소개, 문화 퀴즈 등 온라인 수업을 함.

신둔초등학교 🇰🇷 ↔ 시가현 고카시 고히라 소학교 🇯🇵

7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교류 및 편지 교환(플랫폼 프로젝트)을 통해
이천시와 시가현에 대한 지역 교류 활동을 실시함.

영선중학교 🇰🇷 ↔ 이자카야현 소재 중학교 🇯🇵

이자카야현 소재 중학교 학생 6명을 선발하여 하계 방학 중 본교로 초청하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교류하고, 홈스테이를 실시함.

여의도중학교 🇰🇷 ↔ 스트리스무트프라칸 학교 🇹🇭

태국 자매학교 학생 30명 및 교사 2인이 본교를 방문하여, 태국 문화수업, 한국 전통문화 체험, 체육수업 참여,
학생주도 발표 활동 등을 통해 교류함. 11월에는 본교 학생 30명 및 교사 4인이 태국 자매학교를 방문하여,
체육수업, 한국전통체험수업, 방과후 짝꿍친구와 교외문화체험 등을 실시함.

함창중학교 🇰🇷 ↔ 데이빈슨시 🇺🇸

상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데이빈슨시 학생들과 상호 방문형 홈스테이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한일교사대화를 통해 알게된 일본교사들과 메신저(SNS)를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간 비대면 교류를 검토하고 있음.

철원고등학교 🇰🇷 ↔ 카이치 고등학교 🇯🇵

일본 카이치 고등학교와 자매학교 결연을 맺고,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방일/방한을 통해 공동탐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계성고등학교 🇰🇷 ↔ 히로시마현 다케다 고등학교 🇯🇵

온라인 수업 교류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자국어 신조어 및 유행어,
고등학교 생활 및 학생문화, 진로 및 입시 등을 주제로 발표와 대화를 진행함.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 ↔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

학생들과 한일교사대화 중 학교방문 경험을 공유했으며, 희망학생은 겨울방학 중 오사카를 방문할 예정임.

국립서울맹학교 🇰🇷 ↔ 나가노맹학교, 가고시마특수학교 🇯🇵 - 예정

2024년부터 일본 나가노맹학교와 국제공동수업을 월 1~2회 실시하고 있음.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와 일본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배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음.
방학기간 중 두 차례 나가노맹학교 교사들이 본교에 방문하여 학교 소개, 한국 문화체험 등을 함께함.

장곡고등학교 🇰🇷 ↔ 나미키고등학교 🇯🇵, 가멜 헬러럽 고등학교 🇩🇰

일본 나미키고등학교와 온라인 수업 교류를 6월 중 3차례 진행함.
덴마크 가멜 헬러럽 고등학교와의 온라인 국제교류를 실시했으며,
8월에는 덴마크를 방문하고 시흥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함.
11월에는 덴마크 가멜 헬러럽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단이 본교를 방문하여 교류함.

상명고등학교 🇰🇷 ↔ 아카호고등학교 🇯🇵

2023년 MOU를 체결한 일본 나가노 지역의 아카호고등학교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남성여자고등학교 ↔ 니시오토쿠니 고등학교, 방콕국제학교

2025년 1월, 본교 학생과교사가 일본과 태국의 학교에 각각 방문하여 교류함.

경기경영고등학교 ↔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일본체육대학카시와 고등학교

2025년 5월부터 일본학교 2개교와 동아리 단위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을 주제로 만든 영상을 공유하며 영상교류를 추진함.

인천만수고등학교 ↔ 히로시마현 가이타고등학교, 사이타마현 우라와실업학원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를 추진하여 일본 학생 37명 및
교사 5명이 본교를 방문하고 1:1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함.

서울영일고등학교 ↔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10월에는 본교 학생들이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에 방문했으며,
12월에는 일본학생들이 본교에 방문하여 교류할 예정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6월에는 각 교실에서 한일 양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고베와 일본 관련 질문을 주고받는 교류 활동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본교 학생들이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류함.

문산수익고등학교 ↔ 신코-다치바나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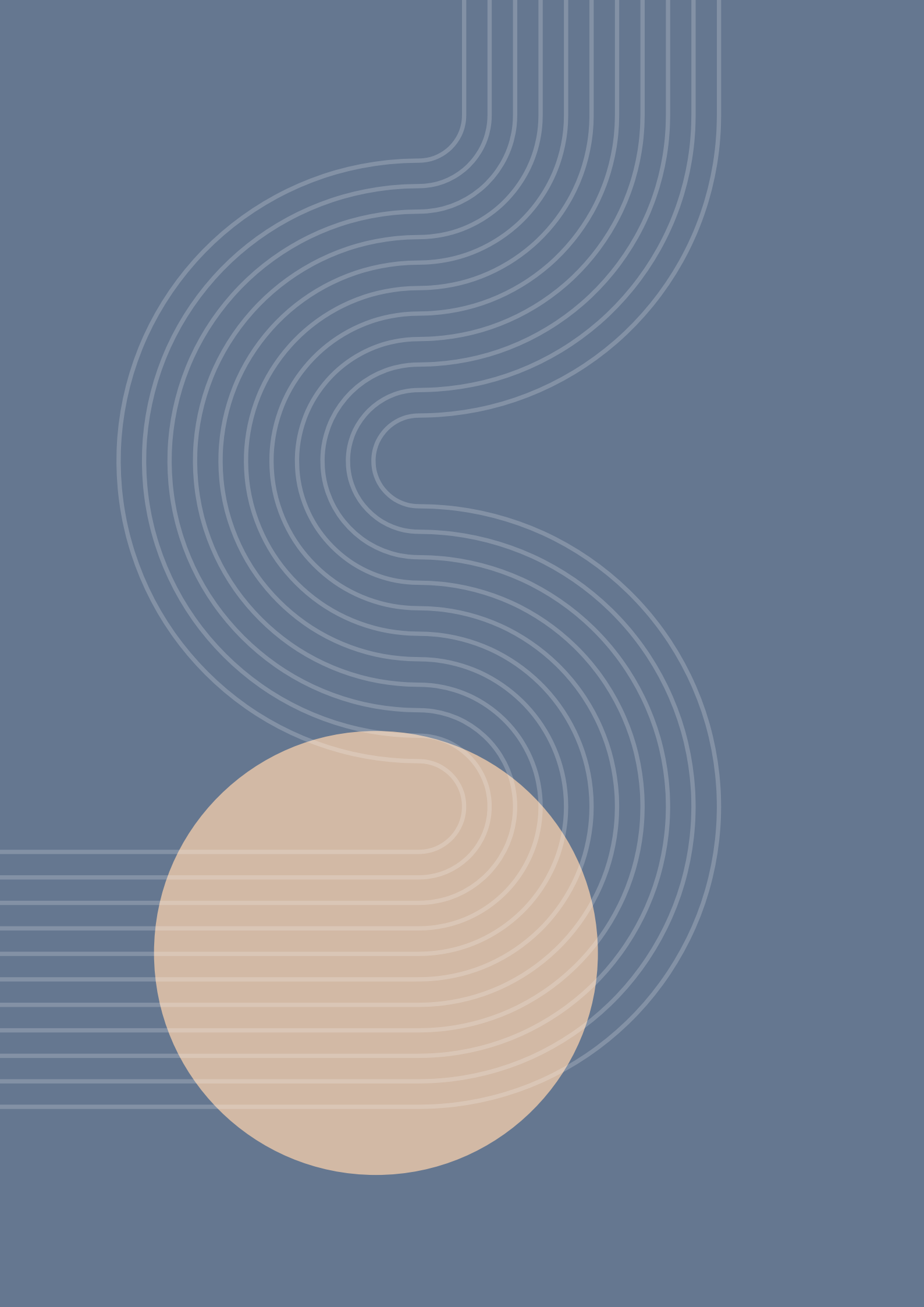
일본학교 밴드 동아리 학생들, 본교 동아시아문화연구반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 교류를 실시함.
학생들과 공동 제작한 AI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음악 연주 등 학생 상호 간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함.

원화여자고등학교 ↔ 히로시마 히지야마 여자고등학교

한국 문화 소개, 홈스테이, 수업 참관, 문화 유적지 방문 등을 진행하여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

염광고등학교 ↔ 요카와 고등학교

한일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촬영·공유하며 교류하고, Zoom을 활용한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함.



V. 부록

- 01 참가자 명단
- 02 주요 인사말씀 원고

01. 참가자 명단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단장 김성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경남대학교 명예석좌교수

A그룹 대표 조광래 | 도개고등학교 교장

B그룹 대표 이동호 | 고색고등학교 교장

※소속, 직함 등은 참가 당시 기준

그룹	참가자 번호	성명	소속	직함
A그룹	K-1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K-2	강병일	부산성우학교	교장
	K-3	공은성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K-4	김민희	백사초등학교	교사
	K-5	김세림	서울신대림초등학교	교사
	K-6	김형수	청하중학교	교사
	K-7	나유경	정원여자중학교	교사
	K-8	문기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K-9	박화영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사
	K-10	빈장원	성환초등학교	교사
	K-11	오정훈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K-12	윤기종	지정초등학교	교사
	K-13	이아린	진가초등학교	교사
	K-14	이은주	한솔중학교	교사
	K-15	이지은	영선중학교	교사
	K-16	이철민	신둔초등학교	교사
	K-17	전예린	샘마루초등학교	교사
	K-18	정하규	창녕대성고등학교	교장
	K-19	조광래	도개고등학교	교장

그룹	참가자 번호	성명	소속	직함
A그룹	K-20	조은희	선화여자중학교	교사
	K-21	채희창	함창중학교	교감
	K-22	홍지원	하늘빛중학교	교사
	K-23	황다은	연천초등학교	교사
	K-24	황현주	여의도중학교	교사
	K-25	권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B그룹	K-26	권가연	계성고등학교	교사
	K-27	김미란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교사
	K-28	김승철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
	K-29	김용재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K-30	김인희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K-31	김현숙	장곡고등학교	교사
	K-32	김형길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장
	K-33	류동구	경기경영고등학교	교사
	K-34	변동준	염광고등학교	교사
	K-35	송미진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교사
	K-36	송희진	인천만수고등학교	교사
	K-37	신영재	고창북고등학교	교사
	K-38	이동호	고색고등학교	교장
	K-39	이상형	서울영일고등학교	교사
	K-40	이지현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K-41	전혜인	문산수역고등학교	교사
	K-42	정지혜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사
	K-43	조상주	태릉고등학교	교장
	K-44	최경심	칠원고등학교	교사
	K-45	최은숙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K-46	최중현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사
	K-47	한혜진	안화고등학교	교사
	K-48	홍선미	상명고등학교	교사
	K-50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단장 및 A그룹 대표 와타나베 마사코 | 시코쿠추오시립 나카노쇼초등학교 교장

B그룹 대표 와타나베 노리히코 | 조에쓰시립 야치호중학교 교장

그룹	참가자 번호	성명	소속	직함
A그룹	J-1	渡邊 雅子 와타나베 마사코	四国中央市立中之庄小学校 시코쿠추오시립 나카노쇼초등학교	校長 교장
	J-2	生駒 明之 이코마 아키유키	奈良市立一条高等学校附属中学校 나라시립 이치조고등학교부속중학교	教諭 교사
	J-3	上地 那津紀 우에치 나쓰키	美里中学校 미사토중학교	教諭 교사
	J-4	臼田 悠理 우스다 유리	長野県野沢北高等学校 나가노현 노자와키타고등학교	教諭 교사
	J-5	改野 由佳 가이노 유카	たつの市立龍野東中学校 다쓰노시립 다쓰노히가시중학교	主任教諭 주임교사
	J-6	金子 聡 가네코 사토시	長野県上田染谷丘高等学校 나가노현 우에다소메야오카고등학교	教諭 교사
	J-7	鎌田 達磨 가마다 다쓰마	久喜市立鷲宮中学校 구키시립 와시노미야히가시중학교	教諭 교사
	J-8	神田 由佳 칸다 유카	宮城県立光明支援学校 미야기현립 고묘특수학교	教諭 교사
	J-9	清沢 玲奈 기요사와 레나	日野市立日野第七小学校 히노시립 히노 제7초등학교	教諭 교사
	J-10	久保田 博明 구보타 히로아키	長野県上田高等学校 나가노현 우에다고등학교	教諭 교사
	J-11	坂口 絵梨子 사카구치 에리코	関西学院大学千里国際中等部高等部 간세이가쿠인대학 센리국제학교중고등부	専任教員 전임교사
	J-12	坂梨 晶子 사카나시 마사코	八千代市立みどりが丘小学校 야치요시립 미도리가오카초등학교	教諭 교사
	J-13	佐藤 純子 사토 준코	新潟県村上市立岩船小学校 니가타현 무라카미시립 이와후네초등학교	教諭 교사
	J-14	澤田 隆視 사와다 다카시	埼玉県立岩槻はるかぜ特別支援学校 사이타마현립 이와쓰키하루카제특수학교	教諭 교사
	J-15	高田 慎太郎 다카다 신타로	佼成学園女子中学高等学校 고세이학원여자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J-16	田井 香織 다이 가오리	浪速高等学校 나니와고등학교	教諭 교사
	J-17	寺下 浩徳 데라시타 히로노리	大阪府立泉北高等支援学校 오사카부립 센보쿠고등학교	教諭 교사
	J-18	中村 敦子 나카무라 아쓰코	群馬県立尾瀬高等学校 군마현립 오제고등학교	教諭 교사

그룹	참가자 번호	성명	소속	직함
A그룹	J-19	西岡 潤二 니시오카 준지	北海道美瑛町立美瑛小学校 홋카이도 비에이정립 비에이초등학교	教諭 교사
	J-20	西田 麗菜 니시다 레이나	東大阪市立上小阪小学校 히가시오사카시립 가미코사카초등학교	教諭 교사
	J-21	西村 卓哉 니시무라 다쿠야	愛知県立丹羽高等学校 아이치현립 니와고등학교	教諭 교사
	J-22	野宮 裕子 노미야 유코	愛知県立加茂丘高等学校 아이치현립 가모가오카고등학교	教諭 교사
	J-23	林 まみ 하야시 마미	日本体育大学柏高等学校 일본체육대학 가시와고등학교	教諭 교사
	J-24	藤田 恵未 후지타 에미	町田市立小山小学校 마치다시립 오야마초등학교	主任教諭 주임교사
	J-25	向井 杏奈 무카이 안나	箕面市立彩都の丘学園 미노오시립 사이토노오카학원	生徒指導 학생지도교사
	J-26	毛利 泉 모리 이즈미	中台小学校 나카다이초등학교	主任教諭 주임교사
	J-27	山崎 誠 야마자키 마코토	北海道八雲町立東野小学校 홋카이도 야쿠모정립 히가시노초등학교	校長 교장
	J-28	横内 駿佑 요코우치 쉰스케	苫小牧市立ウトナイ小学校 도마코마이시립 우토나이초등학교	教諭 교사
	J-29	福家 真優 후케 마유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学校情報基盤 教材課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학교정보기반·교재과	係員 계원
	J-30	山本 美来 야마모토 미쿠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プログラムオフィサー 프로그램 담당관
B그룹	J-31	渡辺 徳彦 와타나베 노리히코	上越市立八千浦中学校 조에쓰시립 야치호중학교	校長 교장
	J-32	赤羽 晋治 아카하네 신지	松本市立明善中学校 마쓰모토시립 메이젠중학교	教諭 교사
	J-33	荒木 亜紗子 아라키 아사코	倉敷市立万寿小学校 쿠라시키시립 마스초등학교	教諭 교사
	J-34	五百旗頭 真智子 이오키베 마치코	明石市立朝霧中学校 아카시시립 아사기리중학교	教諭 교사
	J-35	井口 誠文 이구치 세븐	江田島市立大柿中学校 에타지마시립 오가키중학교	教諭 교사
	J-36	井上 一光 이노우에 잇코	田辺市立本宮中学校 다나베시립 혼구중학교	教諭 교사
	J-37	上山 梨佐 가미야마 리사	北海道倶知安高等学校 홋카이도 쿿찬고등학교	教諭 교사
	J-38	清原 羽衣 기요하라 우이	橿原市立晩成小学校 가시하라시립 반세이초등학교	教諭 교사
	J-39	黒澤 玲 구로사와 레이	板橋区立緑小学校 이타바시구립 미도리초등학교	主任教諭 주임교사
	J-40	小清水 万貴 고시미즈 마키	長崎県立西陵高等学校 나가사키현립 세이료고등학교	教諭 교사

그룹	참가자 번호	성명	소속	직함
B그룹	J-41	古謝 環 고자 다마키	石垣市立登野城小学校 이시가키시립 도노시로초등학교	教諭 교사
	J-42	後藤 了允 고토 료스케	宮崎県西都市立穂北小学校 미야자키현 사이토시립 호키타초등학교	教諭 교사
	J-43	小宮山 潤 고미야마 준	長野県長野吉田高等学校 나가노현 나가노요시다고등학교	教諭 교사
	J-44	新名主 敏史 신묘즈 도시후미	鹿児島修学館中学校・高等学校 가고시마 슈가쿠칸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J-45	多川 恵 다가와 게이	佐渡市立南佐渡中学校 사도시립 미나미사도중학교	教諭 교사
	J-46	中田 由美 나카다 유미	長野県小諸高等学校 나가노현 고모로고등학교	養護教諭 보건교사
	J-47	中野 瑞希 나카노 미즈키	東京科学大学附属科学技術高等学校 도쿄과학대학부속과학기술고등학교	養護教諭 보건교사
	J-48	中前 星香 나카마에 세이카	田辺市立上芳養中学校 다나베시립 가미하야중학교	教諭 교사
	J-49	根岸 一成 네기시 가즈나리	宮城県塩釜高等学校 미야기현 시오가마고등학교	校長 교장
	J-50	野村 太郎 노무라 다로	大東市立大東中学校 다이토시립 다이토중학교	教諭 교사
	J-51	野本 純一 노모토 준이치	浜崎小学校 하마사키초등학교	指導教諭 지도교사
	J-52	引間 萌 히키마 모에	兵庫県立農業高等学校 효고현립 농업고등학교	教諭 교사
	J-53	兵頭 佳央理 효도 가오리	愛媛県立北条高等学校 에히메현립 호조고등학교	教諭 교사
	J-54	平林 勇斗 히라바야시 유토	小平市立小平第五小学校 고다이라시립 고다이라 제5초등학교	教諭 교사
	J-55	福田 裕子 후쿠다 유코	千葉県立松戸国際高等学校 치바현립 마쓰도국제고등학교	教諭 교사
	J-56	光田 由香子 미쓰다 유카코	中央区立佃島小学校 주오구립 쓰쿠다지마초등학교	教諭 교사
	J-57	山下 優香 야마시타 유카	出水市立出水商業高等学校 이즈미시립 이즈미상업고등학교	教諭 교사
	J-58	山田 真紀子 야마다 마키코	大阪府立鶴見商業高等学校 오사카부립 쓰루미상업고등학교	教諭 교사
	J-59	川端 愛海 가와바타 아미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児童生徒課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아동학생과	係員 계원
	J-60	伊藤 妙恵 이토 다에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主任 주임

*소속, 직함 등은 참가 당시 기준

02. 주요 인사말씀 원고

2025 한국교직원 일본초청연수

방한단 대표인사

김성열 단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가 초청한 한국 교직원의 대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직원 49명을 초청하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만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한국 방문단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년째를 맞는 한일 교직원의 상호 방문 사업은 한일 양국의 정치적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등에도 중단없이 지속되어 온 민간 차원의 매우 뜻깊은 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의 교직원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여겼던 일본의 교육 체제 및 교육환경, 문화 등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직원들은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에서 보내주신 일정표를 보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정이 넘치는 환영 만찬은 우리 방문단의 긴장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 교직원의 일본 방문은 그 덕분에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만찬을 준비 해주신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문부과학성(MEXT) 미즈노 도시아키 국제과 국제협력기획실장님,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의 구리바야시 다다시 국제교육교류부장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의 현성철 교육관실 책임실무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배사

서현숙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일교직원 교류 사업에 있어 다시 오사카를 찾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준비하며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에서 한일 교직원 교류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진심 어린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와 고베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두 도시 모두 한국과 깊은 역사적, 문화적 연대를 이어온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저는 고베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20여 년 전 방문하여 고베 대지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고베 대지진 30주년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한 고베의 이야기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난 25년간 한일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며,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전통이 이어져 더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표어는 “우리의 삶을 위한 미래 사회를 설계하다”(いち輝くの未来社会のデザイン)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 방일 프로그램 주제인 ‘행복학교’를 떠올리며 이렇게 건배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한 학교를 함께 설계합시다!”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

환영 인사

하유경 |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곰방와). 대한민국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입니다.

2025년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을 찾아주신 일본 교직원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한일 교사교류의 가치를 함께 지켜오신 김성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한일교사대화 사업이 25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교사 교류는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쌓아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연수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서로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 여정이야말로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연대이자 실천입니다.

특히 이번 연수가 열리는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생태의 보고이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평화의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수가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교육현장에서 시작하는 한일 양국의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인사

김광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찾아주신 일본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한일교사 대화, 2025 일본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양국의 교사들이 함께 교육의 가치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평화를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는 ‘평화의 섬’ 제주가 선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온 섬이며,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은 그 뜻을 더욱 빛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제주교육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적 감수성,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철학,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배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곧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자, 올해 한일교사 대화의 주제인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방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매우 깊고 큼니다.

이번 교류의 경험이 한일 양국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남고, 앞으로도 한일 간 교육 협력의 물꼬를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를 찾아주신 일본 교직원 여러분을 환영하며, ‘한일교사 대화, 2025 일본교직원 한국초청연수’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인사

김성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입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님,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CCU)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와타나베 마사코 단장님을 비롯한 60명의 일본 교직원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를 찾아주신 일본 교직원 방문단 여러분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직원을 상호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한일 교사 대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의 교육부와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교사대화는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약 3,2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교류에 참여하여 양국 간의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인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양국 교실에서는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명의 일본 교직원 여러분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일교사대화의 역사에 깊이와 무게를 한층 더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청 연수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세 가지 지위를 갖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도의 슬픈 역사인 제주 4·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평화와 인권, 생태와 공존의 가치를 품은 평화의 섬입니다. 이곳 제주에서 양국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5년 동안 한일 관계에는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일교사대화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온라인 교류를 포함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생전에 “국가는 대립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시민의 연대가 형성이 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5년 간 지속하여 온 한일교사대화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양국 연대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교사 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간 그리고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뒷받침한 교육부와 문부과학성 간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쌓아온 값진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교사대화가 ‘교류’를 넘어 한층 더 심화된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교직원 여러분은 이번 한국 방문을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여겼던 한국의 교육체제 및 교육환경, 문화 등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한일교사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에서는 협력과 연대로 나아가는 한일 교육공동체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CC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주도 푸른 밤 아래에서 바다의 속삭임을 들으며 건강하고 유익한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사

와타나베 마사코 | 단장

처음 뵙겠습니다. 에히메현에서 온 와타나베 마사코입니다. 「한국정부 일본교직원 초빙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25주년을 맞이한 데 더해,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본 전국에서 모인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아시아문화센터(ACCU)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해와 협력을 보내주신 일본의 교육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과 상호 이해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의 7일 동안 교육기관 시찰과 현지 교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만남 역시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이 7일간의 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교류를 깊게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해 나가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건배사

서현숙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연대본부장 서현숙입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고인 제주에 오신 일본 교직원 대표단과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일교사 교류사업이 어느덧 3,200명이 넘는 양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사반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교류의 장을 이곳 제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연수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공동의 사회적 노력으로서의 교육’과, 행복한 학교의 첫 번째 기준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꼽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방문하시게 될 제주의 학교들은 바로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의 미래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깊은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한일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건배!

“いっしょにしあわせなにつかん きょういく きょうどうたいをつくっていきましょう。かんぱい!”

건배사

와타나베 노리히코 | 조에쓰 시립 야치우라 중학교 교장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와타나베 노리히코입니다. 저는 일본 교직원 방문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으며, 니가타현의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제주의 유네스코학교 관계자 여러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따뜻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국제 교육 교류를 통해 평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류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더욱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배 제의해도 되겠습니까? 건배!

2025 한일교사대화 결과보고서

협력과 연대의 25년

펴낸날 | 2025.12.12.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윤병순

편집 | 강희진, 권송, 백서현, 신종범, 조이, 황지윤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웹사이트 | www.unesco.or.kr

문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전화 | 02-6958-4140

전자우편 | aspnet@unesco.or.kr

디자인 | 100스페이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ED-2025-BK-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일교사대화 결과보고서

협력과 연대의 25년